


#그건\_강간입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최종발표회

일시: 2016년 2월 25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푸르른 스물다섯, 생동감 넘치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그건\_강간입니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 방지 캠페인 최종발표회

일시: 2016년 2월 25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사회: 잇을(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장)

시간	내용	발표자
19:30~19:45	인사	
19:45~20:00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 활동보고	하은
20:00~20:10	두려움에 움츠리지 말고 세상을 흔들어봐	수진
20:10~20:20	한국의 강간문화에 대하여 : 섹스 아닌 강간입니다	닥터W
20:20~20:30	죽도록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강간 정의에 관해	예지
20:30~21:00	기획단토크	
21:00~21:30	플로어토론	
21:30~	[비공식 일정]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 최종발표회를 열며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활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이제 그 마지막 장인 최종발표회입니다. 활동내용을 같이 나누고 고마움과 격려를 나누게 될 이 순간이 기쁩니다.

작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여성을 일컫는 ‘골뱅이(@)’라는 은어, 그리고 일부 바, 클럽은 도수를 속인 술이나 약물을 판매해 성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로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나,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지금도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취한 여성을 모텔이나 집으로 유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대중문화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남성이 오히려 남자답지 못하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과 성폭력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중단하라는 외침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해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감싸기가 여전히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취한’ 상황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통념, 성폭력피해자에게 가하는 비난과 의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회.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본 상담소의 오랜 문제의식이 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전해져 행복합니다.

이 캠페인은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분노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획단장 가온이 본 상담소에 캠페인을 제안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늘 우리들, 특히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위협해왔지요. 본 상담소는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주목하여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뜻을 함께하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20명에 가까운 기획단이 모여졌고, 작년 11월부터

이때까지, 기획단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즐거운 에너지와 집중력, 수다, 가내수공업으로 캠페인 활동을 만들어온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47명의 후원자 분들, 행사마다 참여해주시고 자원해서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어서 캠페인이 더 생동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사법부가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종사자가 강하게 혼합된 술의 제조를 요구받거나 성폭력 위험상황을 목격했을 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데이트강간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진료가 적절히 되기 어려운 문제, 약물 사용여부를 수사과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전환, 가해자를 목인하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어야만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문화를 폭로하고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2.25.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목차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최종발표회를 열며	
<hr/>	
01 문제의식과 제안	
<hr/>	
02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 강간입니다'를 시작하며	가온
07 한국의 강간문화에 대하여 : 섹스 아닌 강간입니다	닥터W
15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연관성	그녹
18 반성폭력을 위한 대학 내 성교육의 필요성	그녹
<hr/>	
22 12월 24일 캠페인	겨울 그녹수진
<hr/>	
26 아마조네스 자경단	가온
<hr/>	
29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는 실천 간담회 - 남성성 김장하기	
<hr/>	
30 여는 글	가온
34 남성성과 여성성을 깨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녹
39 관계 안의 폭력은 남성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동동
42 남성의 몸으로서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청
45 자유토론	하은(정리)
<hr/>	

<b>55 애주가의 밤</b>	
56	짠! <span style="float: right;">잇을</span>
58	술 마시는 여자가 만만해? <span style="float: right;">라라</span>
65	술 x 섹스? 괜찮은 조합이 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span style="float: right;">백목련</span>
71	섹스 왜 하나요? 술 마시기도 바쁜데 <span style="float: right;">이조</span>
76	자유토론 <span style="float: right;">하은(정리)</span>
<b>88 동의하고 하는 행진</b> <span style="float: right;">가은</span>	
<b>94 기획기사 #그건 강간입니다</b>	
95	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span style="float: right;">가은</span>
102	[System] '쭈그리'님이 현피를 뜨고 있습니다 <span style="float: right;">수진</span>
108	탈출구의 캠페인 <span style="float: right;">이조</span>
115	죽도록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강간 정의에 관해 <span style="float: right;">예지</span>
<b>119 부록</b>	
120	알콜과 연관된 성폭력 : 대학에서의 빈번한 문제 <span style="float: right;">닥터W</span>
124	일본 강간죄·준강간죄 관련 법률 <span style="float: right;">마젠타</span>
125	보도현황 <span style="float: right;">수진(정리)</span>
127	캠페인홍보물

---

## 문제의식과 제안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를 시작하며)

가운

### 캠페인의 배경과 역사성

이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5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이 운동은 만연한 여성혐오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 시작을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선언 운동에서부터 찾고자 할 것이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요'를 외치며 IS로 향한 고등학생 김군의 가상적 입장을 김태훈이라는 한 칼럼니스트가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위험해요'라는 칼럼으로 대변한 사건이 공분을 사는 것과 거의 동시에 엠마 왓슨의 '평등을 바란다면 모두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이 겹쳐지면서 '내가 바로 페미니스트' 라는 선언이 줄을 이은 것이 2015년 2월이었다. 이것을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으며 여성단체의 후원금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며 운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처음 이루어지게 된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점차 사그라질 것처럼 보이던 이 움직임은 이후에 장동민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여성혐오가 이슈가 되며 다시금 분수령을 이룬다. 무수한 여성혐오 어록을 가진 개그맨 장동민이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싫어하는 여자의 조건이라고 말한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이는 'Go Wild, Speak Loud, Think Hard' 라는 영어로 변주되며 페미니스트들의 표어가 되고 이 문구를 새긴 에코백, 키링, 팔찌 등의 페미니스트 굿즈가 생산되기도 한다.

---

1) 이 글은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시작하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77호) 를 고쳐 쓴 것입니다.



장동민의 '무한도전' 등장 여부에 대한 각축의 과정에서 장동민 팬덤 등에 의해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가 극심해졌고 페미니즘은 트위터를 넘어서 다른 여성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점차 저항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로 인해 온라인에는 '메갈리안'이라는 주체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여성혐오를 패러디하는 몇몇의 '드랍'에서 출발하였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분노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군집을 형성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그들은 이제껏 등장한 적이 없는 낯선 주체로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다.

## 온라인에서 출발한 저항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을 패러디해 이름 붙여진 메갈리안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형태의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였다. 익명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여성혐오를 '미러링'하는 것에서 출발한 이 '센 여자들'의 커뮤니티가 무르익자 이 곳에서는 남성 성문화에 대한 폭로성 고발이 이어지게 된다.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는 '몰카'가 이슈가 되고 이 몰카를 유통하는 통로인 '소라넷'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이러한 이슈를 가장 예민하게 좇는 SNS인 트위터 역시 이 분노를 공유했고, 또한 몇몇 트위터 유저에 의해 술과 약물을 활용한 강간문화가 폭로되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액션이 모색되게 된다.

이 캠페인 역시 그러한 저항적 움직임의 일환이다. 여성혐오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는 놀라운 가시성과 영향력을 가지며 여성들에게 실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다만 이전까지는 그것이 '일베'로 지칭되는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애시장에서 탈락한 일부 '루저' 남성의 돌출적 행위라고 해석되었으며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축소되어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성혐오가 한 번 이름 붙여지며 주목되기 시작하자 그것이 얼마나 촘촘하게 남성, 아니 사회 전반의 성문화를 에워싸고 있는지 드러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문화가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발견했을 때 여성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술을 포함한 약물을 활용한 강간 역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마치 판타지에서나 존재하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남자친구에 의해, 지인에 의해, 또한 무작위로 매일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강간 용도의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가 넘쳐나고, 실제 강간 후기가 약물의 상품평에 오르며 사진과 함께 소라넷에 공유되기도 한다.

성인인증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남성 유저들은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의 성기 사진을 올리며 친구들을 불러서 윤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성 성기에 이물질이 꽂힌 사진을 올리고 '꽂을 물건 추천 받아요' 글을 올리며 놀이로 삼기도 한다. 식칼 두 개를 여성의 성기에 꽂은 사진은 많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강간할 공범을 찾는 '초대남 구해요'라는 글도 매일같이 올라온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댓글을 다는 남성들 중 아무도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가입자 10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 최대의 대중적인 성인사이트라는 것이었다.

이 소라넷의 유입 경로는 매번 바뀌는 주소를 공지하는 공개 트위터 계정인데, 이 계정을 구독하는 팔로워의 수만 38만 명에 이른다. 소라넷에 대한 충력이 트위터를 휩쓸자 한 명의 유저가 이 팔로워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너 소라넷 하니?'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에 대한 거센 반발이었다. 소라넷이 몰카를 공유하고 강간을 공모, 인증하는 분명한 범죄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소라넷 하니?' 라는 질문이 지나치게 무례하며 부당한 권력 행사이고 성적 압축주의이며 억압이라는 남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 요구받거나 구분되지 않을 권력을 흔들기

이 캠페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운동의 힌트를 얻는다. 성폭력적 문화 속에서 행동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항상 여성이었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지 말라거나,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등이었다. 사실상 모든 성폭력이, 그리고 이러한 약물강간이나 몰카는 특히 여성이 조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화살이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항감이 존재한다. 이 저항감은 그동안 남성이 갖고 있던 '요구받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이 흔들리는 데에서 연유한다.

또한 질문을 개인 하나하나에게로 향하는 것은 남성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뒤 흔든다. 남성사회는 서로를 성적인 공범으로 만들면서 그 권력을 유지한다. 야동을 돌려보거나 여자친구와의 성적 경험을 낱알이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성매매를 함께 하면서 남성

은 서로가 성폭력적 문화 속에서 돌출되지 않는 공범임을 확인하고 구분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남성 개인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질문이 향하는 것은 이들의 결속을 위협하며, 책임의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결국 누구도 책임이 없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에, 질문 받지 않은 남성들까지 이에 반발했던 것이다. 성폭력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운동은 이 남성 권력에 균열을 냄으로써 가능하다. 회피하거나, 달래거나, 공모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핵심에 다다를 수 없다. 이 캠페인은 바로 그러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추구할 것이다.

##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캠페인의 목표는 약물을 활용한 강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며,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 강간이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는 술, 약물 강간이 분명한 범죄이며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감시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강간통념을 재고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이 주로 목표로 해 온,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과는 구분된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가 통념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람들 개개인의 통념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운동의 방법은 그동안 대중 속에 섞여 있던 책임의 주체를 호명하여 구분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약물, 특히 술을 활용한 강간은 일부의 숨겨진 범죄 행위가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모두가 대중문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동안 문제시되지 않아온 이 사회의 대표적인 강간문화였다. 변화기의 유명 체인 바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알콜 맛이 나지 않는 높은 도수의 칵테일을 쉽게 주문할 수 있고, 클럽에서 강간할 대상을 물색해 달라고 종업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청소년 대상의 웹툰에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여성이 등장했을 때 남성 주인공이 그녀를 강간하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하다', '고자다' 라는 평가가 베스트 댓글에 오르기도 한다.

때문에 이러한 책임의 주체는 강간을 행하는 범죄자 일부로 제한되지 않는다. 성별을 불문하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온 모든 사람에게 생각의 재고와, 행동의 변화를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올해 온라인에서 출발한, 메갈리안으로 대표되는 저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 메갈리안의 운동이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발을 사는 이유는 이들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념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느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들은 자신의 '편안한 일상'이 소수자의 저항으로 위협받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이 거부에 굴복하지 않고 힘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저항은 이어질 것이다. 화장실과 길 거리에 스티커 붙이기에서 시작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 및 팸플렛 배포, 거리 캠페인, 그리고 간담회로 이어지며 목소리를 모으고 이것이 공적 영역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 외침과 몸부림을 드러내기

이러한 운동은 처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쉬운 종류의 것도 아니다. 비판의 여지나 운동이 담지 못하는 지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미 메갈리안과 신생 페미니스트를 향해 미숙함을 비판하며 더 나은 운동의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폭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목소리는 전략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약간의 틈만 생기면 언제든 비집고 나올 비명이며, 그렇게 수없이 중첩되며 비집고 나옴으로써 틈을 넓히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올해 이토록 동시다발적으로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억압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 아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한 번 틈이 생긴 이상,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억압된 분노가 끊어지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우리는 이 캠페인으로 다른 여성들이 앞서 지르고 있는 비명에 화답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욱 공적인 장으로, 더욱 잘 보이는 곳으로 끌고 나오하고자 한다. 보기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눈을 피하지 못하게 될 때에,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 한국의 강간문화에 대하여 : 섹스 아닌 강간입니다

닥터W

### 술 취한 여성이 마주하는 밤거리

밤늦게 걷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태원의 밤거리는 늦은 시각에도 어둡지 않았고, 사람들로 넘쳐났다. 위험하다는 기분이 들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내 팔 끝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걷는 H의 존재였다. 몹시 취해 보이는 그녀 곁으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다가왔다. 게슴츠레한 눈으로 "같이 한 잔 하실래요?"라고 묻는다든가, H의 손을 잡는다든지 말을 건다든지 하는 등의 추파를 던졌다. 하지만 H는 누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지, 건드리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워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대답하지도 못할 질문을 하는 그들의 눈에서 "그녀와 섹스하고 싶어.", "만취한 그녀는 '거부'하지 않을 거야 / 못할 거야." 라는 욕망을 읽었다.

술에 취한 여성들에게 밤거리는 언제나 위험하다. 사람이 많은, 적든, 주변이 밝든, 어둡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라도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위협을 살피게 된다. 지금 내 친구 옆에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에 몸서리가 쳐졌다. 가끔 H에게로 향하는 손짓을 내가 대신 매몰차게 거부하고 나면, 뒤에서 욕설이 들려오기도 했다. 몸도 못 가누는 술 취한 여성을 데려가려는 당신으로부터 내 친구를 보호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뒤돌아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후환이 두려웠다.

###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

이 날 H와 나는 둘이서 와인 한 잔씩을 마셨다. 딱 한 잔씩일 뿐이었다. 그때는 전혀 취

한 상태는 아니었고, 단지 무슨 재미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약간 들뜬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려던 클럽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남자들이 우리 손목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무료로 들여보내 주고, 술도 공짜로 줄 테니 놀다 가라는 거다. 나는 이들의 강압적인 행동이 불쾌했지만, 친구는 그냥 들어가서 잠깐만 놀다 가자고 했다.

들어가기 이내 약속한대로 무료로 술이 한 잔 제공되었다. 친구 H는 한 모금 마셨다. 나에게도 제공된 술이었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술 잘못 마셨다가 약물강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거든. 친구에게도 혹시 모르니 마시지 말라고 언짢은 주었지만, '피해망상'에다가 '예민'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다.

두 모금 마신 그녀는 급격하게 흥분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남자들이 다가왔다. 그녀에게 귓속말을 하고, 같이 춤을 추자고 했다. 자기들 테이블로 와서 놀라고 했다. 세 모금 마신 그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친구를 억지로 끌어내야 했다. H와 실로 오래간만의 재회였다. 이 친구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물강간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무서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지, 오랜만인 친구와 반가운 만남이라는 일상적이고 가벼운 상태를 깨지 않고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H는 나에게 괜찮다며 호언장담을 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그녀도 오랜만에 누리는 이 즐거움과 일상을 깨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다음날 친구에게 제발 병원에 가서 검사 한 번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결국 그녀는 가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이에 그 날 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밤으로 회자된다.

## 강간범을 혐오하면서도 강간하려는 사람들

어떤 남성들은 왜 만취해서 제 몸도 못 가누는 여성과 '섹스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또 어떤 남성들은 각종 최음제/마약 등을 여성의 잔에 몰래 타놓고, 약 덕분에 그녀가 먼저 '덤뻐'다는 자랑스러운 후기를 약물 판매 사이트에 남기기도 한다. 누가, 왜 그렇게 하는가.

보통의 남성들은 '강간'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달려들어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거나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등,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죄인을 처단

하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 보통의 남성에게 '강간범'이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명명보다도 모욕적인 언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내 친구 H에게 손을 뺐은 그 남자들이 죄다 '잠재적 강간범'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약에 취해 걷기도 어렵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것이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왜 어떤 남자들은 또래 남성들에게 자랑스럽게 취한 여성을 <따먹었다>는 영웅담을 떠벌리면서 본인이 '강간했다'는 인식을 하지는 못하는 걸까?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섹스와 강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섹스와 강간을 한 문장 안에 넣는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보통 강간은 사회 부적응자인 '강간범'들이 저지르는, 일상에서 떨어진 특수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섹스로 여겨지는 행위들 중에도 강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여성성은 침묵 혹은 체념하도록 작용하고, 남성성은 주도하도록 작용하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와 법률은 강간에 포함되는 행위들 중에 아주 협의의 개념만을 강간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좁은 개념 속에서 '강간범'으로 법적 처벌이 된 이들조차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판에 이러한 말이 얼마나 많은 거부감을 가져올지 두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스와 강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고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죽기 살기로 저항해야만 강간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 섹스와 강간의 차이

섹스와 강간 사이에서 분명한 것은 그 구분의 중심에 '동의'의 여부가 자리한다는 것이다. 동의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거나,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거나, 아하게 차려 입었다거나, '이건 강간이야'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의는 양측 당사자들이 모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당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법률적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Criminal Code에 의하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consent)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원고의 자발적인 동의라고 정의된다. (Criminal Code of Canada, Section 273.1)

273.1 (1) 세부항목 (2)와 265(3)에 의거하여, 동의란 항목 271, 272, 273의 목적을 위한, 문제시 되는 성적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원고의 자발적인 동의를 말한다.

방주: 동의를 구해질 수 없는 경우

(2) 항목 271, 272, 273의 목적을 위한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해질 수 없다.

동의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행위에 의하여 구해진 경우;

원고가 해당 행위에 동의를 표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피고가 자신의 지위, 권위, 신뢰를 남용하여 해당 행위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였을 경우;

피고가 발언이나 행위를 통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의 결여를 표현하였을 경우

피고가 성적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한 이후, 발언이나 행위를 통하여, 해당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동의를 결여를 표현하였을 경우.

273.1 (1) Subject to subsection (2) and subsection 265(3), consent means,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271, 272 and 273, the voluntary agreement of the complainant to engage in the sexual activity in question.

Marginal note:Where no consent obtained

(2) No consent is obtain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271, 272 and 273, where

(a) the agreement is expressed by the words or conduct of a person other than the complainant;

(b) the complainant is incapable of consenting to the activity;

(c) the accused induces the complainant to engage in the activity by abusing a position of trust, power or authority;

(d) the complainant expresses, by words or conduct, a lack of agreement to engage in the activity; or

(e) the complainant, having consented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expresses, by words or conduct, a lack of agreement to continue to engage in the activity.

출처: Canada Justice Laws Website, Criminal Code 273.1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63.html#docCont> )

273.1 (b) 항목 법률 해석에 의하면

피고가 심하게 취해있거나; 성적 접촉이 시작된 시기에 피고가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혹은 성적 접촉이 있는 내내 피고가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던 경우를 말한다.

As for capacity to consent, courts can infer a lack of capacity where there is direct evidence that:[4]

the complainant was extremely intoxicated;



the complainant was asleep or unconscious when the sexual touching commenced; or the complainant was asleep or unconscious during all of the sexual touching (B.S.B., supra at para. 45).

이러한 조건에서 이 조항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여성, 잠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그렇다. 동의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의식을 잃었거나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어질 수 없다.

이렇듯 섹스와 강간 사이에는 동의(consent)라는 과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은 술에 취하거나,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모르고 먹은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수 높은 술을 '작업주라 칭송하며,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작업' 한 번 해보라 권하는 우리의 성 문화는 사실상 강간조장문화나 다름없는 것이다.

'작업주가 아무런 제재 없이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 문화가 여성의 '동의(consent)'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충분히 거부'하지 않으면 섹스라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 한국 법률에서의 강간

불행하게도 우리의 강간 관련 법률도 이러한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성폭력은 '동의'의 여부가 아닌 '여성에 의한 충분한 거부'의 여부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섹스는 상호 합의에 의한 행위가 아닌, 남성이 여성을 온갖 수단(유혹, 작업, 술, 약물, 협박, 폭력)을 사용해서 굴복시키는 행위인 것처럼 보인다. 이 중에 남성의 수단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여성의 거부가 얼마나 완강했느냐를 가지고 강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별하는 거다.

한국 형법에서의 강간과 준강간을 살펴보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또 준강간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여성이 치열하게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증명해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제 발로 걸었던 걸로 봐서 강간이 아니다", "여성이 다음날 아침 일 상생활을 한 걸로 봐선 강간이 아니었다.", "여성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걸 봐선 강간이 아니다." 라는 등의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판결이 난무할 수 있는 것이다.

거부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강간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혹은 약에 취해서 '거부' 능력이 없어졌거나 어려워진 여성들을 '따먹은' 경험을 두고, '그 여자를 강간했다'가 아닌 '그 여자와 손쉽게 잤다'며 영웅담 마냥 지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쉬운 섹스 이론'에 감화된 남성들은 경쟁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못하는 쉬운 상대'를 찾아 '사냥'에 나선다.

## '강간 문화'가 만연한 사회

한동안 메갈리안 사이트에 올라온 남성들의 여성흥분제 사용 후기가 이슈였다.

"주인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물약병을 약국에서 얻어 담아 댔습니다. 냄새 빠지라고 뚜껑도 열어주는 센스! 후배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자마자 6분의 1 병을 투하하고 손가락으로 휘휘 저어주고..... 슬슬 쓰다듬으니 조금씩 느끼는 듯한 게 느껴지더군요.. 합의 후 관계! 깨끗해요."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가관이었다. 상대방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한 상태에서 먹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가급적 모르는 상태에서 먹이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성의 경우는 부끄럽게 생각해서 멘탈로 (강간 시도를) 이겨내려는 경향이 강해서입니다."

완전범죄를 위해 약병을 미리 구해두고 냄새를 제거하며, 몰래 투하하고 숨기는 과정까지 거치면서도 '합의 후 관계' 라고 믿는, 도저히 믿지 못할 판단 과정은 마찬가지로 '강간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런 식의 남성중심적인 성 문화는 남성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식에도 작용한다. 성폭력피해자는 '내가 충분히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거절하지 못했기 때

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나 술과 약물을 활용한 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너무 절제하지 못해서' 라는 등, 성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할 수 있다.

누구나 성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도록, 결과적으로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떨까. 발끈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성폭력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성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남성사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게 위해 우리는 쉽사리 강간범들이 일반 남성이 아닌 '인간 이하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들만의 행위라고 단정 지어 왔다. 극악무도한 성폭력 관련 기사마다 남성들이 즐줄이 앞장서서 '남자도 아닌, '남성 성기를 잘라버려야' 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성폭력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가해자와 일반 사회 구성원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유사점들이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 행위는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는 학습되는 것)이다. 균일한 남성집단 내에 돌연변이 마냥, 다른 남성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강간범'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여성의 행실이 단정치 못하니 강간을 당했다고 피해자를 탓하며, 모텔에 가자고 한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원래 좋아도 몇 번씩 텅기니 싫다고 해도 덤비라 가르치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누구든 '잠재적 가해자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강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피해자를 본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시선은 어느새 우리를 방조자 혹은 2차가해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런 성폭력적인 가해와 시선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남성도, 여성도, 이 글을 적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 '평범한' 남성들에게

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강간 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구에 휘둘리는 '예비 강간범'이라서 만취한 여성에 환호하고, 좀 더 티 안 나고 도수 높은 작업주를 찾고, 흥분제를 타는 것은

---

2) Sarah Brown, Treating Sex Offenders, 2005, WILLAN PUBLISHING, U.S.A.

아니라고 믿고 싶다. 무엇이 '강간'이고, 무엇이 '섹스'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성 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바꾸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스스로를 '잠재적 아군'이라 칭하는 여성혐오 사회의 평범한 남성들에게 바치는 글이 될 것이다. 강간문화를 멈추고, 강간을 멈추어 달라고 강간이 아닌 섹스를 하자고



섹스와 강간 사이에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동의의 여부'가 존재한다.  
술에 취한 여성은 동의하지 않는다.  
홍분제를 먹고 흥분한 여자는 당신과의 섹스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자는 동의할 수 없다.  
기억하자. 그것은 섹스가 아닌 강간이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연관성<sup>3)</sup>

그нок

술자리에서 독한 술이나 약물(최음제)을 여성에게 먹여 강간을 하는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며, 가해자 남성들이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라넷'을 통해 알려진 뒤 많은 여성들이 공분하였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여성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성폭력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점을 악용하며, 남성사회는 이러한 성폭력의 원인을 '술을 많이 마신 여성'으로 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이 마음놓고 즐겁게 술을 마시기가 어려워지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인신매매를 동반하기도 한다. 인신매매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납치, 감금, 아동 성매매, 장기매매 등을 쉽게 연상하며,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연결고리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이나 합석을 목적으로 하는 술집 등에서 여성을 심신상실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물을 탄 술을 버젓이 판매하기도 하며, 만취한 여성을 남성에게 인도하는 직원과 거기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남성은 일종의 인신매매를 행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UN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즉, 인신매매는 직접적인 무력의 행사 이외에도, 위에 나열된, 인신매매에 필요한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각종 수단을 통해 착취를 위한 사람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UN이 인신매매를 이처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이유는 '이동' 행위 자체를 인신매매로써 처벌해야만 착취의 고리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상황에도 UN

3) 공익법센터 어필(www.apil.or.kr) 참고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

- 목적: 착취; 착취의 구체적인 형태는 성매매, 그 밖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강제고용, 노예나 그와 유사한 관행, 또는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
- 수단: 위협, 무력의 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 악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
- 행위: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인수

- UN,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단순히 여성과의 섹슈얼한 관계를 위해 합석 술집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여성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고 해당 여성의 나체를 찍어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초대남'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가해자이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몰래카메라/도촬 범죄로 이어지며, 이러한 범죄는 여성의 성을 도구로 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소라넷의 수입원이므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만취한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때로는 합석 술집의 직원에게 <보수나 이익을 제공>하며 여성을 <모집>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 이때 나이트클럽이나 바의 직원이 자신의 행동이 강간범죄에 악용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골뱅이'(만취한 여성을 가리키는 은어. 영수증에 찍힌 '골뱅이'(@)는 만취한 여성을 강간가해자에게 인도했다는 표시)의 대가를 받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가해자에게 <이송>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가담한 행위이다. 술과 약물은 피해자 여성을 비자발적으로 강간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간범 개인의 성폭력을 돕는 합석 술집의 직원 이외에도, 강간에 악용되는 최음제를 오히려 '여성에게 좋다는 홍보문구로 남성들에게 판매하는 판매자, 피해자 여성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자랑하는 것에 일말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소라넷 홈페이지 운영자, 이러한 성폭력을 댓글로 독려하는 남성집단 모두가 소라넷 산업을 유기적으로 돕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간접적인 공모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UN 의정서를 국내적으로 비준하고 있지 않으며 형법상의 '매매'죄는 위의 인신매매 정의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협소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인신매매의 다수는 처벌이 어렵다.

이 글은 소라넷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이용당하고 물건처럼 버려지며, 그 과정에서 이동이 발생하고 금전이 오가는 상황을 '인신매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피해자 여성이 술을 많이 마셔서 '어쩌다' '재수 없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여성의 성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며 성폭력을 방조, 용인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남성 사회의 범죄성은 더 많이 폭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경각심을 갖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 반성폭력을 위한 대학 내 성교육의 필요성

그нок

영화 <헌팅그라운드>는 미국 대학캠퍼스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간실태를 조명한다. 주로 가해자는 남학생, 피해자는 여학생이고 간혹 남학생도 있다. 영화에 나오는 캠퍼스 내 강간은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학교를 상대로 강간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시킬 경우 학교는 대체로 이를 쉬쉬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솜방망이처벌을 내린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술을 만취한 상태까지 마셨다는 이유로 비난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가해 학생은 술에 약물을 타거나 독한 술을 준비하는 등 강간을 치밀하게 계획하는데, 학교 당국이 가해 학생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명백한 강간의 증거들도 적시에 조사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은폐된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지성과 학문의 공간인 대학캠퍼스에서 성폭력, 그것도 강간이 횡행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깰 필요가 있다. 대학은 과연 지성과 학문의 공간이거니와 한 것일까?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의 양상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과 대학을 구성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성문화가 미국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음주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숨어서 술을 마시던 다수는, 대학에 입학하여 비로소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며 음주문화를 본격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이들은 청소년기 당시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성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고, 각자 수동적인 여성성과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폭력적인 남성성을 학습한다. 한국의 남자 대학생들은 여학생의 외모와 몸매 품평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성경험을 스포츠처럼 경쟁한다. 또한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갑작스러운 독립을 하여 술 이외에도 자취, 외박



등 자유로운 환경에 놓인 상황이며, 이는 한편으로 성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기도 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술과 관련된 각종 성폭력(언어적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한국 대학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1990-2000년대를 필두로 '반성폭력 운동'이라는 것이 존재해왔다. 이 운동은 캠퍼스 내 성평등의식의 부재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생들이 학생 자치 차원에서 이뤄낸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 모두를 반대하고, '반성폭력'과 '성평등'을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을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물리적 성폭력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했다. 필자가 신입생 당시 선배들에게 받은 반성폭력 교양 자료집에는 '성적 차이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언행은 성차별이다. 술은 여자가 따르고,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드는 것은 성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폭력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와 같이, 흔히 생각하는 성폭력의 외연을 보다 넓히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러한 반성폭력 교양은 해당 반성폭력 콘텐츠를 계속 접하고, 매년 신입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교양을 듣는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권력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를 교정할 성교육을 중, 고등학교 때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단지 '선배들에게 성폭력의 개념을 몇 시간 동안 교육받고 자신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란 어렵다. 특히 반성폭력 교양을 실시할 때 '성평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고용과 임금 차별, 육아불평등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성평등 교양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여긴다. 오히려 사회는 성평등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기기 때문에 성평등교육의 내용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학생들 또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술자리를 비롯한 일상에서 여학생들의 옷차림과 외모가 성적으로 대상화되며 여학생들을 '보호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만연하는 등 대학생 사이의 성적 불평등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교양은 '형식적인' '너무나 당연한' '귀찮은' 얘기일 뿐인 것이다.

남성의 권위에 기반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가부장적 남성성을 경계하지는 반성폭력 교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관한 개념 이외에도 각종 성폭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기존에 주로 다루어지던 '성역할' '성차별' 내용뿐 아니라, 데이트나 술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내용이 교육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은 보호받는 존재, 남학생들은 술을 잘 마셔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기존의 성역할을 그대로 대변한 부당한 인식이다' 라는 내용과 동시에 이러한 인식이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회 역시 성폭력의 일상성을 인정하고, 반성폭력 교양의 취지인 '반성폭력'에 충분히 공감하여야 한다.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술을 이용한 성폭력 상황은 그간 대학문화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대학은 이를 규제하고 예방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반성폭력 교양은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과 생활을 시작하는 학기 초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기간 내내 학생회가 '경찰'이 되어 모든 성폭력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없다. 하지만 데이트와 술자리, 그 밖에도 학과 행사와 그 외의 각종 사적인 모임에서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대학 측은 학생회에게 반성폭력 교양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을 모든 재학생들에게 필수 교양으로 받게 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캠퍼스 내의 불평등한 성의식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대학생들의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성교육의 중요성은 학창 시절부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이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

거리캠페인

## 12월 24일 캠페인

겨울, 그нок, 수진

12월 24일 밤 9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기획단과 이날의 자원활동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의 거리 흥대로 나갔습니다. 첫 거리캠페인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성폭력적 상황을 세 가지 판넬로 제시하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팸플릿과 스티커를 나누고, 젤리와 핫팩으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두 시간여의 캠페인을 함께한 기획단 세 명의 후기를 심습니다.



###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의 캠페인은 어렵게 시작했다.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정착한 곳은 공교롭게도 술집이 밀집해있는 거리 앞이었고, 과연 사람들이 우리에게

게 신경을 쓸까 싶을 정도로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관심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왜 골뱅이 인주를 시키는 게 나쁜 거예요?'라는 질문부터 '그래서 그런 흥분제는 어디서 파나요?' 라는 불쾌한 질문까지 여러 질문을 받으며 우리의 캠페인은 진행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거 어디서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라고 대답하니깐 눈빛이 따뜻해지시던 분. 처음에는 낮가리고 쭈뼛쭈뼛해하던 나도 나중에는 열심히 다른 자원활동가 분하고 "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핫팩을 준다고?" 이런 콩트식 대화를 나눌 정도로 재미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좀 더 쉽게 맺기 위해 몰래 도수가 더 높은 술을 시키는 것을 술/약물에 의한 강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 몹시 충격적이었다. 흥분제(라고 말하는 데이트강간약물)에, 혹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과의 섹스를 강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당히' 술에 취한 사람은 동의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슬퍼졌다. 커플끼리 왔을 때 남성분이 YES에 스티커를 붙이려 하는데 여성분이 '뭐야 난 이런 거 싫어' 라고 해서 NO에 붙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마음 아팠던 예로는 남성분들 여럿이 온 경우 한 남성분이 NO에 붙이자 다른 남성분들이 '진심을 말해봐' 라고 킁킁 웃었을 때가 있었다. 그분의 진심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마치 YES에 붙여야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끝나고 정리하고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묻고 스티커를 붙였다.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NO에 스티커를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아무도 YES에 스티커를 붙이지 말았어야 했지만) 붙였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만족했던 점은 이 둘이었던 것 같다.■

캠페인 YES/NO 판넬 내용 : 당신이라면?

- 1) 호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상대방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 2) 떨리는 데이트를 앞둔 당신에게 흥분제가 생겼습니다. 성공적인 성관계를 위해 상대방 모르게 음식에 흥분제를 넣어도 될까요?
- 3) 당신의 데이트 상대는 도수가 낮은 달콤한 술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 달콤하지만 도수가 높은 술을 몰래 주문해도 될까요?



## 그нок

크리스마스 이브에 홍대에서 캠페인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연인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혹여나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캠페인에 불만을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의 주요 타겟인 연인들이 많은 때와 장소를 선택한 만큼 캠페인의 효과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낸 여러 아이디어들을 조직하여 하나의 깔끔한 콘텐츠로 팜플렛, 피켓, 몸자보, 스티커를 제작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말 멋진 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한 열 명 남짓의 자원활동가들도 모두 열정적으로 캠페인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관계는 성폭력이고 강간! 이라는 멘트가 한 시간 반 내내 홍대 거리에 울려 퍼졌고,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호의적으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NO'여야 했는데, 생각보다 YES 응답이 많았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술, 약물을 이용한 섹스는 강간!'이라는 피켓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아닌데..'라며 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아직 강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두 달 동안의 남은 자원활동 기간 동안 더 많은 캠페인과 그 밖의 다양한 기획을 통해 강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색다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여 더욱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 수진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매우 추웠다. 평소의 크리스마스이브라면 절대로 오지 않았을 흥대에서 나는 얼어붙은 손발을 웅크리며 길거리에 서있었다. 열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겠다고 모였다.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었다. 길 한 편을 차지하고 피켓을 내보이며 술에 취한 사람의 동의는 동의가 될 수 없다고, 그건 강간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십여 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나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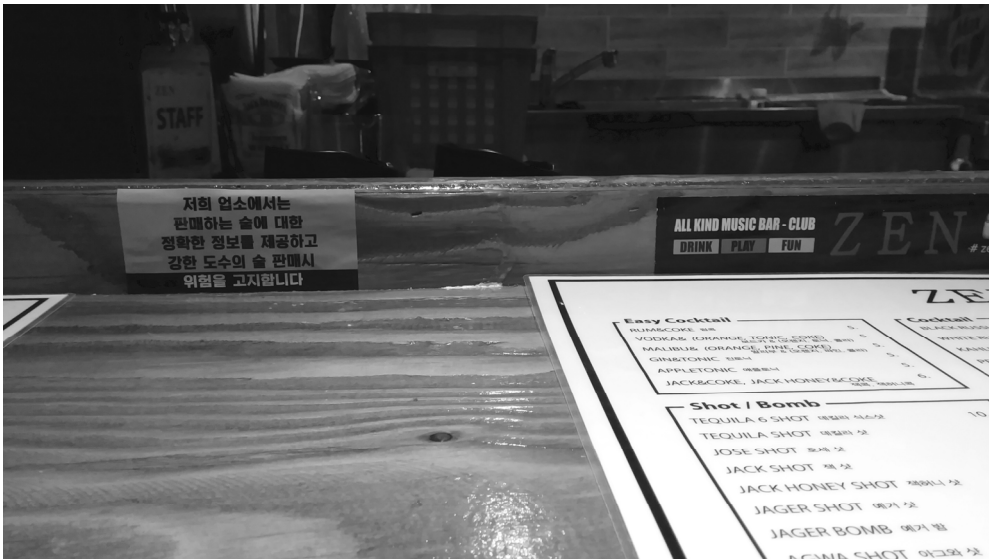
캠페인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보다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다. 솔직히 나는 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그게 왜 강간이 되는 거냐고, 그럼 술 마신 사람과는 섹스하면 안 되는 거냐고 소리 지르며 날 밀치는 장면을 상상해왔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상대방은 대체로 남성이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의 물리적 폭력에는 제대로 대항할 수 없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상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남성들의 눈을 마주치며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나친 우려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

‘즐겁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동안 이 말을 믿지 않았다. 현실에 대한 분노에 못 이겨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즐겁다. 그것도 매우. 우리를 스쳐간,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가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 들였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대다수는 곰젤리에, 그리고 핫팩에 이끌려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활동이 크리스마스이브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아마존네스 자경단

가은

1월 9일. 홍대 인근에서 두 번째 캠페인 활동 '아마존네스 자경단'을 진행했습니다. 거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가 보일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서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가게 안에서 성폭력적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성폭력을 목적으로 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묻고,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캠페인 기획단이 만든 스티커 등을 이 가게에 부착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단 가은의 후기를 실습니다.



나에게 처음 이 캠페인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트위터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이였다. 대형 바에서 알바를 했던 한 사람이 데이트 상대의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한 강한 도수의 칵테일 주문이 너무나 흔하다는 사실과, 그 칵테일의 별명, 그리고 그러한 술을 톱 3만원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텐더의 주요 부수입원이라는 이야기를 폭로함으로써 엄청난 반향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현직 바텐더가 '그런 사람은 바텐더라고 부를 수 없으며 정통 바에서는 손님들의 음주량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한 직업윤리로 삼는다. 바텐더에 대한 편견을 생산하지 말라'는 트윗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폭로자와 바텐더 모두 강간방조자나 여성혐오자로 몰리며 여럿에게 생채기를 입혔다.



나는 이것이 사람들을 무력하게 느끼도록 만듦으로써 약자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한 예시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남성이 데이트상대를 강간하기를 원하는 것, 술을 마신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 그리고 술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없는 세상에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는 뭘 잘했냐, 뭐가 다르냐”는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은 결국 무력함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했고, 주류 판매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성폭력 반대 스티커를 인쇄해 거리로 나갔다.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주류 판매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주류 산업이 성폭력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실제로 부딪쳐 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캠페인이 끝나고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날 우리가 방문한 10여개의 업소 중 대형 바 두 군데에서 흔쾌히 캠페인 스티커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성폭력을 위한 주문을 한다면 소형 바보다는 체인점 등 규모가 크고 종업원을 고용한 대형 바에서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어둡고 지하에 있고 음악이 시끄러운 곳에는 일단 불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바 두 군데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을 보며 술과 성폭력이 이어지는 것을 정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결정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은 다른 대부분의 업소 종업원들 역시 예상보다 캠페인에 협조적이어서, 어쩌면 판매업자들 중 상당수도 술과 성폭력을 연결 짓는 통념으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다만 그러한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는데, 기획단 중 주류 판매업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많으면 하루에 이십여 건 이상 그러한 주문을 받기도 한다고 했기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었다.

또 하나 예상치 못한 것은 캠페인에 가장 저항감을 보였던 곳이 부킹술집이나 룸 술집 등이 아니라 바텐더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바였다는 사실이었다. 확률적으로 그러한 곳에서 성폭력을 위한 주문이 적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동참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본인의 업소에서 그런 성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직업적 자부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종업원들이 누구도 성폭력을 위한 주문을 들어본 적 없다고 하는 것과는 비슷하게 느껴졌다.

캠페인을 마치며 성폭력 반대는 마치 절대적인 선처럼 여겨지는 반면 실제 성폭력은 여전히 너무나 공적이지 않고, 논의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캠페인이 혹시 성폭력을 일상에 침투될 수 없는 절대악으로 여기는 시선에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을 면대면으로 만나 경험과 생각을 묻고, 직접 동참을 요구하는 일이 무척 새롭고,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느꼈고, 이것이 탈정치화된 성폭력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다.

이 캠페인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되며, 참여자에게도, 또 우리가 마주하는 주류 판매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주류 판매업 이외에도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자리 역시 마련되었으면 한다.■

---

#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는 실천 간담회

## 남성성 짐장하기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는 실천 간담회  
남성성 짐장하기

지금 나  
짐장하는 거야?



궁금한 이야기

- \* 남성성과 여성성을 깨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 관계 안의 폭력은 남성에게 미할 수 없는 '운명'일까?
- \* 남성의 몸으로서 페미니즘을 실천 한다는 것은?
- \*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남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6.1.15.금 19시반~21시반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주최: 유심길 한국성폭력상담소 슬과 악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전강간입니다 기획단  
문의: 카운, 잇을 (02-338-2890, antialyakrape@gmail.com)

---

## 여는 글

가운

안녕하세요? 이 간담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두 달 전인 작년 11월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 강간입니다 기획단의 자원활동가로, 기획단 17명 중에서도 남성성과 성별이분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히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고자 모인 다섯 명이 몇 주간 토론을 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의나 발제를 통해 뭔가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는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자 하는 의도이며, 행사 이후에도 이것을 계기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폭력 방지 캠페인에서 왜 남성성과 성별이분법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상성'으로 여겨지는 '남성성'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성욕을 참을 수 없고, 여자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을 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남성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일부의 특수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자신 주변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러한 시선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로 무척 어려운데요, 특히 남성이 이러한 시선에서 혼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남성성'을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틀거나 벗어날 수 있는 좀 만만한 주제로서 다뤄 보자는 의도로 소금을 뿌리고 숨을 죽이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김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 중 하나가 '분리하기'와 '이름붙이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예전에 '떡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캠페인에서 김치녀 프레이밍을 만들고 이름붙이는 것을 '김장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성을 김장한다고 했을 때는 김치녀를 프레이밍한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간담회는 타자에 대한 이름붙이기 아니라, 권력을 가진 프레임, 남성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그 지배적인 '남성성'에 대해 '벗어나고 재조합하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목에서 중요한 것은 '김장' 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남성성이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남성성을 좀 더 괜찮은 형태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희는 보통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감수성, 도덕, 인권 같은 가치를 '남성성'에 단순히 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성별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를 세상의 토대로 삼는 성별이분법 자체에 틈을 낼 수 있는 실천을 좀 모색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간담회이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별이분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참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행사를 이전에 참가해본 적도 없고 이런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해 본 것도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행사가 될지,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아직까지도 잘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신 분들이 아마 무척 다양한 배경에서 참여하셨으리라는 짐작은 합니다. 어떤 분께는 이러한 주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본인에게 주요한 고민이었을 수도 있고, 작년 2015년을 거치면서 처음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며,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전부터 시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고, 실제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엇이 뻔한 이야기인지는 비교적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는 무엇이나고 하면 그건 저희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 드리는 것은, 이러한 주제를 말하기를 시도하는 지금, 뻔하거나 구린 이야기를 할까봐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고민을 하든 다 각각 의미 있고 지지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실천을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도 그 어려움이나 모호함, 한계점, 또는 비판의 여지를 알고 계시거나 예상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획기적인 실천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판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겨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도 어쩌면 말씀하신 것이 이미 몇십 년 전에 반박이 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비판을 하지 않고 의미만을 따지자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더 비판을 염두에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누군가 비판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분이 그걸

모른다는 공격이 아니라, 놓친 지점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비판을 할 것이 있으면 역시나 가볍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비판을 받고 수용하는 것도 남성성에 틈을 내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깨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기획단의 그녹 님이 이야기를 열 예정입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편리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현실에서 남성성·여성성의 극복이 일상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러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다른 관계방식을 상상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의 폭력은 남성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 일까?> 부분의 동동 님은 죄책감이 남성의 가해를 미화하면서 '착한 거부장'으로 스스로 위치시키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으로 '타자와의 관계성'을 추구하시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남성의 몸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 단청 님은 페미니즘을 통해 '남성의 몸'을 인식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결의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즘의 언어로 타인이 아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특정성별이 아닌 페미니스트의 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자고는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남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으로 개인의 정체성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몸을 어떤 성별로 환원해버리는 강력함과, 여기에서 함께 벗어나기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성에게 감성, 감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저는 이해에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남성의 권력과 성별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본인의 경험을 피해로 인식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감수성은 아니겠죠. 아마 용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갖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감수성은 그 이후에야 가능하며 그때 타인과의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저항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혐오를 받기 때문이죠. 남성성이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하지도 않은 상대에게 성 경험을 묻거나, 야동을 돌려 보거나, 함께 성매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성은 서로의 예외 없음을 확인하고 탈락자를 혐오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는 사람들 없이, 단지 감수성을 갖지는 말만으로는 절대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회에 대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수성이라고 부르는 그것 역시 용기가 아닌가 합니다. 강자에는 누구나 쉽게 이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능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약자에게 이입하는 감수성은, 단지 감성이 충만하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를 악마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악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모습도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입하는 감수성은,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의 용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감수성이 아니라, 서로의 용기를 응원하고, 또 혼자서는 내지 못할 용기를 함께 내는 그러한 기회로 이러한 자리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성성과 여성성을 깨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нок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젠더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 받으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일종의 덕목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편리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현실에서, 남성성·여성성을 극복하지는 메시지가 페미니즘적 가치의 실천에 따른 보람을 넘어 일상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필자는 감히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

### 1. 자신을 여성으로 정의하며 ‘여성’이기를 거부한 필자 개인의 경험

‘젠더’는 ‘재생산의 무대<sup>4)</sup>’라는 한 여성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필자는 여성으로서의 젠더를 수행하기를 거부해왔다. 자신을 여성으로 정의하지만, 가사노동(정리정돈이나 요리 등의 모든 집안일)이나 외모 꾸미기 등 여성다움을 수행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여긴다. 일례로 몸(자궁)을 보호할 목적으로 차가운 바닥에 앉는 것을 애써 경계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성과의 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주도’하는 편이다. 즉, 개인적인 행동양식이나 관계를 맺을 때에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가장 ‘여성’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가 아닌,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걸으며 두려움을 느낄 때와 칙칙한 분위기를 화기에애하게 만들기 위해 각종 술자리에서 남녀 성비를 맞춰서 앉을 때이다. 필자는 그 순간 ‘여성’으로 호명된다.

하지만 어쨌든 가정에서만큼은 여성성을 수행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었고,

4) R.W..코넬. 1995. 『남성성/들』. P. 117.



그 이면에는 필자를 '아들 같은 딸, 아들보다 더 나은 딸'로 만들겠다는 부모와 친척들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가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개 개인이 사회에서 여성성(외모 꾸미기, 애교 등)을 강제 당하지 않기 위해 '남성에 못지않은 여성' 전략이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남성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성 해방의 계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젠들'하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하는 남성에게 대해 때로는 고마움과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필자를 여성으로 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불편하기 위해 나를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겠다는 다짐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행동 하나하나를 검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수차례 피로함과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성격이 '여자에' 같아 보인 않았지 혼자서 걱정하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하고 바란다. 또한 남성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남성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으며 얻는 편리함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 밖에도 조금이라도 여성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행동들에 반응하며, '나를 구성하는 '여성성'에 대한 끊임없는 통제가 뒤따른다. 개인의 행동이 여성성의 문법에 들어맞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안감이 필자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다. 젠더를 거부하고, 젠더를 행동 양식에서 지우려고 하면서 젠더를 고정시키는 역할은 어쩌면 이 자리에 온 이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 2 남성성·여성성에 간하지 않은 관계방식의 필요성

기존의 젠더규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와 같은 자아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필자는 지배적인 남성성, 여성성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별 역할이 변주된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남성을 '가부장'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는 여성운동의 전략과도 통한다. 여성은 개인이 '여성'으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역설적으로 여성이 가부장적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환하며 차별에 저항한다. 기존의 남성 질서가 가부장제 신화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남성은 가부장적 사회 질서 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가부장적 남성 이외에도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글을 쓰는 지금도 남성male 을 남성적masculinity 인 것과 혼동하기도 하고, 'anti-masculine'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남성'이라는 용어를 쓰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남자답지 못한' 주변적 남성성은 '게이 같음'으로 일컬어지며 혐오의 대상이 된다. 물론 기존 젠더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관계를 상상할 때, 필자 또한 페미니스트 퀴어 남성들과

의 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했다. 이성애중심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게이 정체성을 의식하고 이성애자 남성의 권력을 비트는 남성들을 통해 다양한 남성성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성애 연애 각본에 위치지어 지지 않아도 되었고, 여성으로서 받는 호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했다. 여성임을 애써 의식하지도,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탈성애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며 남성성, 여성성이 전제된 이성간의 관계에 저항한다는 즐거운 느낌이 들었다.

남성집단 내에서 추방당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게이 남성에게 덧씌워지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이하의 특성들은 남성으로서의 사회화가 되지 못하고 탈락한 남성의 특성들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은어는 ‘wimp’(병약한) ‘sissy’(여자에 같은) ‘jellyfish’(해파리처럼 물러터진 놈) ‘cream puff’(쫄대 없는 놈) ‘milquetoast’(연약한 남자) 등이 있고, 한국에서도 ‘기생오라바리’는 표현이 ‘남자답지 못하다’의 비유로 쓰인다.<sup>5)</sup> 게이 혐오와 트랜스젠더 혐오가 사실상 성별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혐오와 같은 맥락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Man box>에서 빗겨나간 남성이 괴롭힘의 대상에 쉽게 놓임을 알 수 있다. 마초이즘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성성이 개인과 사회에서 소멸되는 것에 일말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사회와 개인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배적인 젠더 질서에 벗어나는 특징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다른 관계방식을 상상하는 데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임에 틀림없다. <남성성/들>이라는 책에서는 젠더 혼란<sup>6)</sup>을 극복하고 가부장적 남성성을 다양한 남성성’들로 분할하려면 ‘탈젠더화와 재조합하기’ 전략이 개인의 몸과 사회의 문화 및 제도에 침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전략은 ‘남성’ 혼자가 아닌, ‘여성’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며 공고해지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 3. 그렇다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깨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실천

지금부터 소개할 나름의 실천들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획단의 코멘트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결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참가자 분들께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다.

첫 번째는, ‘게이 같다’라는 표현을 단순한 비유가 묘사가 아닌 혐오표현으로 쓰지 않으며

5) 같은 책 P. 126.

6) 같은 책 P. 204.

더 나아가 '게이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퀴어한 남성성과 '헤테로hetero 남성성'의 경계를 흐려보자는 것이다. 게이 남성성은 무엇이고, 헤테로 남성성은 무엇인가?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성적지향 뿐이다. 그러나 게이 같다고 일컬어지는 탈락된 남성성에 대한 혐오가 호모소셜한 남성집단에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성애자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 남성성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정상성인 남성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퀴어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하지는 말아야 하며, 그동안 자신이 터부시했던 '남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실천해보자는 의미이다. 이는 가부장적 이성애사회에서 게이 혐오를 타파하는 길이기도 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남성성을 낙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남자가 하지 않을 것 같아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한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여성적인' 아이템을 해보는 것, 동성친구와 카페에 가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같이 보는 것 등 남성규범의 영역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신화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런 제안 역시 다소 이성애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내 앞의 상대가 남성 혹은 여성이며 이성애자라는 확신을 버려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 자신의 젠더가 다른 트랜스젠더, 남/녀가 아닌 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젠더퀴어가 존재하며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 비이성애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닥치는 관계 안에서는 개인의 성적체성과 성적 지향을 너무도 쉽게 단정해 버리곤 한다. '개가 나를 남자 (혹은 여자)로 보지 않나봐'라는 말이 쓰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남성성과 여성성은 젠더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로 얽힌 관계 안에서 확대 재생산된다.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는 이성애 신화는 개인을 이성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위치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자상하다'는 남성, '조신하다'는 여성의 젠더 표현이며 이들은 주로 이성이 상대를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러한 젠더 규범에 간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성별을 확정하고, 이성인 상대에게 남성적/여성적 매력을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보자. 필자는 앞서 페미니스트 남성 퀴어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성애적인 존재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을 말한 바 있다. 친구 중 어떤 레즈비언 역시 남성과의 관계에서,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 이성애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정립하였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지인 중 어떤 페미니스트 남성도 자신과 친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레즈비언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역시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관계가 주는 편안함이 친밀한 관계에 일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애 규범, 젠더 규범이라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관계들이 확장될 때 남성 권력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해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간담회에는 성별이 한 개인의 생각을 단속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어 성을 매개로 한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믿음에 공감하는 참가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의 두 가지 실천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거나 생각해본 방안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 관계 안의 폭력은 남성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 일까?

동동

페미니즘은 남성에게 폭력을 하지 말라는 요구일까요? 페미니즘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 : 남성이라는 정체성과 페미니즘은 어떻게 충돌할까?

정희진은 자신의 저서에서 죄책감이라는 정서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갖는 핵심 정체성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성별 역할 수행의 과정에서 가해자성을 수행하게 되며 스스로도 그것이 일종의 가해 행위임을 인식하든 은연중으로든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 남성이 행사하는 사생활 통제 행위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본인의 행위가 일종의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데이트 성폭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인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에 남성은 강한 죄책감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반드시 미화되어야 한다. 혹은 남성성의 주체가 미화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사생활 통제 행위를 이상적인 '남성성'의 일부로 규정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단순히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의 잣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미학적 차원으로 승격시킨다. 여기서 '미'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주류권력이 승인한 여러 아름다움 중의 하나를 채택하여 내보이는 것이다. 이 남성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침묵으로 묵인하면서 느끼는 죄책감 내지는 죄의식이 미적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 죄책감에 빠져 가련하고 무기력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를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태도를 취하는 ‘착한 가부장’은 또 다른 가부장의 가해에 대한 가부장제 체제가 승인한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이 페미니즘과 만났을 때 바로 이 ‘죄책감’은 미끄러지기 쉬운 가부장적인 자기성찰의 방법이다. 페미니즘에서 다루는 폭력은 주로 성별이분법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가해/피해에 대한 것이고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권력의 가해가 주된 내용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너무나도 쉽게 가해자에 위치시켜 이입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지난 경험들을 ‘가해’로 인식하는 깨달음과는 다른 것이다. 인식의 차원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음미하며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윤리적 남성’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며 자위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의 원죄를 깨닫고 이를 행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입하여 자신을 가해자의 위치로 내몬다. 명백히 가부장의 역할 수행이다. 굳이 나쁜 가부장과 착한 가부장을 분류하자면 ‘착한 가부장’은 죄책감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전시하고 소비한다.

조금 전에 서술한 내용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서술한 것이지만 남성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페미니즘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쉽게 미끄러지기 쉬운 정서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지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에 대한 자기비평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죄책감을 통해 이를 소화시킨다면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차로 인한 권력의 간극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페미니즘은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매뉴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묘한 우위에서 여전히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단지 자신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변명하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줄이게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페미니즘이던 다른 어떤 소수자 저항 담론이던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계 내 ‘나’에 대한 중요함의 과대해석이며 그것을 자의식 과잉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나 하나가 마음속으로 엄청난 반성과 성찰을 한들 그것은 사실 이 거대한 세계에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나르시시즘의 일환으로 소비되는 페미니즘이 죄책감로 이어지는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고민에서는 타자와의 관계성이 부재하기 쉽다. 물론 여기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부터 한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질문 : 페미니즘을 공부한 남성이라면 응당 섹슈얼한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기 자신을 '착한 가부장'으로 위치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모든 섹슈얼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 no means no이면 yes이면 다 괜찮은가? 이 구호의 목적은 no라는 말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가해자의 면죄부로 활용된다. 그런데 왜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남성에게 요구하는가?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는 귀찮게 매번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상호간의 동의는 묻고 답하는 절차를 통해 알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그러한 친밀한 소통은 엄청난 애정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선행 되어야 할 관계 안에서의 노력이 부재하며, 거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무력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직접 구하는 행위는 의사소통의 결핍에서 나오는 폭력의 직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최후의 통첩이다. 상대방이 동의를 행위의 가장 직전 상황에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은 그때까지 어떤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행위를 할 때 꼬박꼬박 동의를 구했는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기 위해서 얼마나 의사소통에 충분한 노력이 상호 간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이다.■

## 남성의 몸으로서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청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방법은 책이나 글을 통한 만남이었다. 그렇게 지식을 접하면서 나의 인식은 당연스레 점차 변화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나의 행동에서도 부족함을 많이 상기시켰었다. 비교적 학문적인 접근은 페미니즘의 담론 안에서만 인식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사회적인 구조와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학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움직임을 함께하고 싶었다. 페미니즘은 학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와 현실적인 차별과 폭력에 맞닿아 살아 가는 삶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사회 구조 변화 그리고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는 실천이다. 실천이 연결되는 페미니즘은 나의 실체, 몸을 통한 액션을 매개하기도 한다. 특히나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온 가부장제의 폭력을 문제시하고 불평등한 성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페미니즘에서는 몸이라는 것은 때때로 주요 논의의 요점을 갖는다.

하지만 나의 몸은 남성의 몸이었다. 남성의 몸은 나에게 이런 저런 페미니즘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다준다. 실천에 있어서 나의 남성성을 성찰하고 페미니즘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 이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부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성을 중심으로 했던 삶은 나의 페미니즘 실천에 자기 검열로서 남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데 여성 당사자가 아닌 몸을 가졌기 때문에 돌연 내 앞에 활동에 장벽이 되는 몸. 사회에서 가부장제 폭력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몸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몸'이라는 사실.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남성'이라고 호명된 몸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나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꾸 의문이 들게 한다.

먼저, 필자의 경우 스스로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 자라오면서 스스로 남성중심 구조를 체득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체화된 남성 권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남성권력이 아님을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들이 남성권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페미니즘 안에서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데 '남성'의 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여성'과 달리 면제가 되는 듯 했던 구조의 억압과 폭력들을 이야기하는 데 당사자의 현실과 감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도 스스로 주춤하고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단순히 페미니즘 학회든 아니면 페미니스트 모임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 '남성' 화자인 나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페미니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또는 여성의 경험을 증언하지는 못한다.

이러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남자가 페미니즘을 공부하네, 왜 해?" 이다. 이 질문에는 대충 가치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지만 이 질문은 사실상 남성의 몸을 가진 나를 직시 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불편해진다. '남성'의 몸은 페미니즘과 가깝지 않다는 인식을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이라고 인정되는 몸만이 전유하는 듯한 경계를 나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페미니즘과 나를 유리시키는 듯한 질문이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남성'의 몸은 그간 혜택을 받아온 몸이 되기에 그것에 대한 적대적인 질문 역시 때로는 피할 수 없다. 페미니즘과 멀어 보이는 듯한 '남성'의 몸은 지속적으로 페미니즘과 멀어지기를 강요하는 듯하다. 그리고 페미니즘 안에서 '남성'이기 때문에 갖는 성별권력은 삭제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페미니즘에서 밀어내고 실천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결국은 '남성'의 몸으로서 성별화된 몸은 페미니즘이라는 담론에서 '어색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남성'의 몸이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 영역이 유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상기시키고 전달하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강력한 가부장제 권력 사회 안에서 '위협이 되는 몸' 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자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면접에서 '남성'이기 때문에 현장이나 활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러한 이야기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단은 '남성'이기에 앞서 우려한다는 것 그리고 젠더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체화한 나의 모습은 보다 뒷전으로 미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이 만약 트랜스젠더인 경우 더욱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한편으로는 스스로 페미니즘과 함께 하면서 갖게 될 한계들을 상기시키는 경험이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건에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경험들도 같은 맥락에서 실천의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스스로 '남성'이라고 자신의 젠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나를 2분법적인 기

준으로 '남성'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시적인 기준으로 판단되고 그것으로 호명되는 것은 사실이다. 어찌 보면 이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며 성별이분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야 함은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당장 실천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별이분법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에는 어떠한 도움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역시도 큰 고민이다. 그러나 '남성'의 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성성'을 부정하는 존재는 될 수 있다. 스스로가 그 몸에서 파생되는 '남성성'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때로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재정의 해나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점은 나에게 스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긍정의 방식이었다. 비록 몸은 '남성'이더라도 '남성성'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나의 모습은 '남성'의 몸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페미니즘의 언어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내가 페미니즘의 당사자가 아닌 연대자처럼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소극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내가 경험한 가부장제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차별이 있음에도 나에게에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페미니즘의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보고 있다. 비록 소극적이고 단순한 전환일지 몰라도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나는 '남성'의 몸이 아닌 '페미니스트'의 몸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보다 상세히 위협이 되는 몸이란 것을 인지하고 섹스와 젠더에 의한 체계 또는 가부장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행동을 해나가는 페미니스트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의 몸이 되면서 나는 '남성'이라고 호명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으로 교차된 다양한 정체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사소한 변화는 내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데 그리고 이해하는 데 나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도 하며 나의 위치를 재위치 지음으로서 실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성'의 몸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것, 특정성별로 규정되어버린 몸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자신에게 큰 부담 또는 경계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에서 자신을 다시 위치 짓는 것은 사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페미니즘과 가부장제 권력의 폭력에 자신의 존재를 진입시킴으로서 주변인인 '남성'으로서 '여성'과의 연대가 아닌 젠더이분법을 넘어서서 성평등과 성차별 반대의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 같다.■

녹취: 하은



**가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자 만든 자리.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한 마중물로 준비한 것이니 참가해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다.

**질문자:** 무성애자 젠더퀴어 에이젠더로 정체화를 한 트위터 페미니스트이다. 세 분 발제 뜻 깊고 잘 들었다.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그녹 님 발제에서 '게이 같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시스젠더 게이 남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젠더규범의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 혹은 비남성으로 일컬어지는 자질을 희화화하고 공연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정체성이 왜 이런 식으로 부정되거나 고민한 적이 있었다. 시스젠더라 함은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양성애자, 무성애자, 이성애자가 존재한다 말하셨는데 무성애자는 비이성애의 대응

어가 아니라 유성애의 대응어다.

젠더퀴어로 오랜 기간을 거쳐 정체화에 성공하면서 느꼈던 점은 젠더블라인드가 된다는 것이었다. 정체화를 하고 나니 이 사람의 성별을 확신할 수가 없다. '나 애인 생겼어, 하면 이젠 '시스젠더야 아니야?' 질문 이후에 '남성이야, 여성이야?' 이걸 묻는 식. 젠더블라인드가 가능하다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동동 님 발제 잘 읽었고 저는 이 죄책감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레기감'이라고 부르고, 호모소셜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집착계 같기도 하고 '남성들은 다 쓰레기다리'라는 죄책감의 공유가 '공범자'라는 강한 연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행사가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 맥락인데, 일단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 안에서 용인되는 비정상성이 있고 하나는 권력 자체를 암시하는 용어 "나는 남성이라서".

남성이란 것이 페미니스트 시선에서 낙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 남성성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상성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이상성욕은 가시화조차 되지 않던 것이 실현되는 순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조건 부정과 회피가 답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일종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없앨 수 없다면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가장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단청 님 발제를 보면서는 성별이분법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성주의운동 안에서의 트랜스포비아에 대해 생각했다. 소위 '마님 페미니즘'이라 해서 '남자는 여자 말에 무조건 수긍이나 해라. 남자는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일컬어지는 데에 대해 제 지인이 일갈을 했었다. 남성 페미니스트가 해야 하는 실천은 '여자 말에 고개나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호모소셜 안에 편입된 것은 남성뿐이니까,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라던가, (그것을 해야 하지 않나).

**질문자2:** 동동 님께 질문이다. 글 잘 읽었고, 궁금한 점은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착한 거부장 그리고 나쁜 거부장으로 나뉘었는데 개인적으로 착하다는 말이 모호하다 생각해서. 가해자가 내가 발생시킨 폭력을 인식했다는 것을 '착하다는 것으로 표현해도 괜찮은 것인가? 궁금했다.

**동동:** 남성성을 라벨링 하는 것인데. 착해 보이지만 거부장이라는 라벨을 붙임으로서 그런

남성성에 틈을 내고자 하는 의도로 접근했다. '착한'이라는 단어의 안 좋은 면을 차용하고자 했다.

**그нок:** 의미를 보충하자면 저는 전 애인과 헤어지고 한참 뒤인, 데이트폭력이 공론화된 작년에 갑자기 전 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거듭 미안하다고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교제 당시의 경험이 데이트폭력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사과를 받고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지?' 라고 생각해보면서 굉장히 불쾌했고 피해자가 되는 경험이 너무 싫었다. 상대방은 자신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해방되고 '착해지'는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에게 미안하다 했을 때, 저의 감정보다 자신이 씻겨 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

**질문자3:** 저는 김장할 남성성이 없는 것 같아서 왔다. 이십대 초반에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했고 이후 젠더퀴어로 정체화, 지금은 시스젠더 게이로 정체화하고 있다.

저는 치마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우산을 고를 때도 핑크를 고른다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 끝부분을 길게 빼주거나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것, 하다못해 물컵을 잡을 때도 새끼손가락을 들어준다던가 그러한 '게이스럽게' 인식되는 것들을 일부러 하는데,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몇 개월, 몇 년 지나니 치마는 일종의 패션의 일부일 뿐이지 대단한 젠더수행이 아닌 것이다. 그냥 예쁘니까 입는 것이지. 마음에 들어서 입고, 시원해서 입고

무작정 '퀴어스럽다', '게이 같다'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재생, 재현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거나 한계가 많은 것 같다. 트위터에서 이런 것을 읽었는데, 해외에서 어떤 남자 분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을 만나 알고 싶어서 일부러 치마를 입었는데 결론은 '일상적으로 호모 새끼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닌다. 저는 치마 입은 남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여성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에도 다양한 맥락이 있지 않나. 그때는 피해자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가해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제 경험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당연히 가해자라 생각했는데, '나도 피해의 맥락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거나 제가 명백히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다. 그 순간에 오로지 피해자라는 맥락만 존재하지는 않았으니.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생득적인 요인으로 약자가 되는 순간, 맥락들을 따져보는 것이 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다.

**질문자4:** 저는 먼 지역에서 살고 있고 오게 된 이유는 이론에 기대지 않고 삶에 기댄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오게 되었다.

그눅 님이 쓴 글처럼 일정 부분 젠더블라인드를 경험했는데 저한테는 나이블라인드의 경험이 더 크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이로운 경험이지만 직장생활에서 맺어진 관계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 삶이 분할되어지는 것이다. 지극히 젠더 나이 직업에 의해 살고 있는 거다. 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고 나는 그 구조에 기대어 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이트폭력은 이성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제 주위에 레즈비언커플에서의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데, 그 폭력은 평소엔 있지 않다가 결별에서 나타나는 거다. 결별을 선언한 순간 너를 되찾기 위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절박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젠더가 아닌 구조가 급변하며 나타나는 데이트폭력도 있고

또 그눅 님 글에 나타난 것처럼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 사이에 탈성애적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자기 애인하고는 굉장히 성별권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래서 가부장 권력과 젠더구조를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에 관한 지혜를 나누고 싶었다.

**질문자5:** 남성들의 목소리를 페미니즘에서 듣기 쉽지 않은데 항상 궁금한 부분이어서, 듣고 싶어서 왔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남자가 셋 이상 모이면 통상적으로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면서 희롱하는 식의, 소위 음담패설을 하며 유대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다. 여기 계신 남성 분들 주변에서 그런 식의 토크를 걸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알고 싶고, 거기서 뭔가 지적을 한다는 것이 남성을 가해자 포지션에 위치시키고 '너 지금 가해야 지적하는 것일 텐데, 거기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성별이분법 깨트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굉장히 좋았다.

두 번째 질문은 앞의 질문과도 연결되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구조를 공고히 내면화하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소수만 고민하고 대부분 남녀는 자신의 젠더를 한 번도 회의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제안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해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게이스러운 행동들을 해보는 것은 지금 사회구조에서는 일종의 일탈처럼 느껴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정상성, 그리고 새로운 성별의 규범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고 싶다.

**그눅:** 음담패설 들었을 때 동동, 단청 님은 어떻게 대처하나?

**동동:** 저는 그런 집단 내에서 있다가 위기의식을 느꼈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했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왔기에 그런 상황을 접하기 어려웠다. 생각

해보면 쉽지 않다. 음담패설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이 집단 내에서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면 명확히 타자화될 것이라는 위협과 여성으로 비하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사실은 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마음먹고 내뱉고 끊으면 되는 거다. 인연이라는 것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한줌의 모래알과도 같은 것이기에. 용기 내어 잘라내는 경험도 중요하지 않을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의 누군가가 되고 응원해주실 분들이니.

**단청:** 고등학교 때 이런 인식이 없었다. 특히 남자반이어서 음담패설이 흐르고 불지옥. 저는 흥미는 없었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리를 뜨는 소극적 방식이었다. 대학생 때 한번은 컷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 사라지고 떠나갔다. 대신 제가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것을 아는 친구들,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같이 옥하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친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집단에 잘 불려나가지도 않았고, 가더라도 조금 경계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 경계가 되는 느낌. 그게 참 좋은 느낌이었다. 모임에서 음담패설을 싫어한다고 밝힌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한 느낌을 받았다.

**질문자6:** 저는 남성 세 명과 같이 작업실을 쓰고 있다. 사람들은 착하다. 약간 모르고, 모르는 것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선한 진보남성으로 생각하는데. 여성에게 ‘어제 남자친구랑 어디서 잤자, ‘몇 시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남성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여기서 생존해나가야 하나? 저도 섹드립을 한다. ‘당신 발기 사이즈는? 굵기는?’ 웃겨 하는데, 그게 서로 에로 에너지가 교류되는 남성과 섹슈얼한 농담을 했을 때 재밌는 거지, 그 사람들과 하는 것이 감흥이 전혀 없다. 저는 그들을 이용해먹고도 싶고, 나름 친구로서는 매력이 있는데. 잘 김장해서, 발효시켜서 씹어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질문자7:** 질문이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아주 소극적인 수준으로, 예를 들면 단지 여성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칭찬이랍시고 ‘남성들끼리 등산을 가죠’ 하다가, ‘누구 씨도 가지죠, 예쁜 여인이 있으면 어찌고, 젊은 여성이라 봤을 때 더 그렇고’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예쁜 여성 역할을 잘 못해서요’ 라고만 말해도 분위기가 싸해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쫓아서 불쾌했는지 신경 쓰며 거의 사죄 비슷하게 눈치를 보더라.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연을 끊어도 상관없다. 내가 이 구역의 미친년이다.’ 이런 멧집이 생기면.

요새는 사회관계에서 누가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나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고민하다가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분명히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지적 받으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 까지 가르치려 하지 마라' 해서 논쟁이 되었는데, 안면과 핏줄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잘 했다. 나의 인식이 발전해나가는 이 자체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데이트폭력 이야기를 하셨을 때, '누가 봐도 폭력적인' 표현은 아쉬웠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폭력인데.

친밀한 관계에서 충분히 소통에 관심을 쏟지 않고 형식적인 것에 대해 고민된다. '아주 확실하게 예스만이 예스라는 말을 듣고 여러 몸짓언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많은데 하도 도외시하기에 동의라도 구해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깐 이런 식의 구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민주주의원칙 다수로 표결하는 것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의 고민은, 정상성 이야기에서 '남자는 짐승이다 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다르게 잡지 않나. 정상성이 옳다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표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상성 궤도 수준 자체가 남성, 여성에게 기대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남성은 조금만 뒤틀 해도 페미니즘 코스프레, 여성은 거칠거나 성질이 더러우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맞다고 비난 받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든다.

**동동:** '누가 봐도 폭력'이라는 표현은 달리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죄송하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화 시키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 생각하든 아니든, 보이기에 남성이라 했을 때 겪는 것들과 페미니스트로서 생길 수 있는 고민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꼭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사에 오신 동기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고민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페미니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보고 싶다.

**그녹:** 남성이자 페미니스트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소위 '게이 같은' 추방된 남성성의 행동양식을 실천해보면 가부장제 남성성이 낙후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손쉽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은 그냥 일탈이고 연을 끊는 것, 가부장제 호모소셜 집단으로부터의 도피인 것 같아서, 제가 제시한 방안 역시 좀 답답하고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몸으로서의 경험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탈이 아닌, 일종의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질문자8:**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남성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게 되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대학원에 진학해 경험치 못한 것에 부딪히게 되고 저 나름의 생존을 모색하면서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것이 있는데.

첫째, 비꼬는 방법이 있다. 가령 술 마시다 보면 저쪽에 모여 있다. 제가 이쪽에서 여자들 기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거기 여자 몇 명 보내' 하는데 들으라는 듯이 '아따 우리 형님들 여자 없으면 술도 못 드시나보네. 기분 나빠하지만 제 성격이 '나는 내 길을 간다' 식이라서, 대놓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비꼈다. 그러면 '역시 술은 여자가 있어야 하다가도 마는 사람들도 있더라.'

두 번째로는 차단이 있다. 저희 학교에 무슨 미스코리아 출신이 합격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 보이는데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 '예쁜 여자 들어왔다니 궁금중이 생기나?' 이러면 쪽팔려 한다. 끊는 거다. 또 되묻기가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왔다고 좋겠다' 라고 하면 "왜 좋아?" 라고 한다. "주변에 이쁜 여자 없으면 안 좋을까보다?" 그리고 그 친구 동문 여자들한테 장난 식으로 얘기하면 도망간다.

마지막으로 전제를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 엠티를 갔는데 어떤 여성이 요리를 하면 개저씨들이 '아이구 우리 누구는 일등 신붓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때 "누나 혹시 결혼한대요? 그런 말 못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나름 저의 생존을 모색하며 반항을 했다. 간접적으로는 페이스북에서 메르스 갤러리저장소 글을 좋아요 누른다. 폐북친구 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누르니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혹은 쿼어퍼레이드 티셔츠나 페미니스트 티셔츠를 입고 일부러 뒤풀이 자리를 간다. 물론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 천연덕스럽게 군다. 여성들은 통쾌해 한다. 그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사소하고 새발의 피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환기시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여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듣기도 했다. 분위기를 차단하거나 해서 돌리는 것도 제가 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천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질문자4:** 당사자들이 대상화되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이중대상화 되어서, 더 비참해지거나 더 가시화 될 수 없거나. '너랑 먹을 때는 더 편하다' 라는 것이 이중굴레인 것. 한꺼풀 더 씌워지는 거. 나 대신 나서서 더 싸워준다는 것.

**질문자8:** 저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만, 남성이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당사자가 하면 '너는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주신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다.

**질문자9:** 트위터에서 보고 왔다. 얼마 전까지 성희롱이 심한 직장을 다녔는데, 수십 명의 남자직원이 있고 여자직원은 단 세 명인.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말을 연습했다. ‘그거 성희롱이에요’ ‘저 불편해요’ ‘다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연습했다,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마침 너무 높지 않은 직급의 대리가 성희롱 발언을 했고 연습한 그대로 하니 회사 전체에 이상한 애로 소문이 나서 전까지 만연했던 성희롱이 딱 끊겼다. 페미니스트로서 성취한 좋은 경험. 그런데 저를 향한 성희롱은 전혀 없었는데 좃대 있는 부장이 곳곳이 자신이 전날 다닌 업소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기에 뭐라 하지 못했는데, 너무 나대는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장이기에 위협을 느끼고 말을 못 꺼낸 거. 먹고사는 문제에 그것이 많은데 남자 분들은 음담패설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너무 궁금했다. 제가 느끼는 한계와 성취였다.

**질문자5:** 저는 단체카톡방에 성기사진을 올리며 노는 것이 문화코드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성이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게 당사자를 오히려 이중굴레에 처하게 하지 않느냐는 말은 마치 남성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자기가 성희롱을 당하는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대상화하지 않고는 그 대화에 낄 수 없는 것이 답답한 것이지 않나. 그 자리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 발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기기도 쉬울 것이고

**질문자1:** 저는 지정성별 남성이 아니지만 여성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때 ‘너는 여자인 게 불편해? 페미니스트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신의 여성성을 확신할 수 있는 여성이 세상에 얼마나 되나, 이런 말도 많이 듣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배제되지 않는 논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조(기획단):**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는 저는 끊는 편. 저는 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있는데 섹스이야기 그 자체가 수위 지나치면 불편하다. 그것이 지속되어 진지하게 ‘이것이 왜 재미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말이 없어졌다. 왜 그것을 재밌다 생각하는지, 왜 하는지 반성하게 하는 이끌어냄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일 중 하나다. 남성사회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자정효과 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배제되는 비남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정성별 남성이 그들의 집단,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정효과를 낼 수 있는가는 자신만의 페미니스트 언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고민거리 같다.

**질문자3:**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게이이면서 성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 급 엄숙해지거나 어떤 분들은 음담패설을 한다. 여성을 상대로 한 음담패설을 남성들이 많이 하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좀 더 수위를 높여 되돌려준다. 남성은 자신이 대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을 못한다. 저는 '머리 벗겨지신 것이 제 스타일인데.' 라고 한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다,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질문자10:**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에 경험을 덧붙인다.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인데. 제가 성평등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학과 안에서 유명해지면서 '저 언니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됐다. 술자리를 가면 '애 왔으니 이런 얘기 못하겠다.' 하고 러브샷을 하다가 멈춘다. 어떤 집단이나 있을 수 있는 불편함인데, 다른 분 말씀처럼 제가 회화화를 한다. 오히려 '저 성평등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반문하면 사람들이 웃고, 저희 학과 술자리문화가 되었다. 러브샷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것임을 알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필연적으로 인연 끊게 되는 것은 있다.

두 번째로는 남성으로 읽히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성 페미니스트는 두 가지로 읽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보빨러'.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다는 말. 그놈 님 발제처럼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다. 제 주변에는 퀴어 분들이 많은 편이고, 자신의 경험에 인해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로는 시스젠더 이성애자이면서 페미니스트인데 당사 자성이 분열되는 경우. 주변에서 오해를 많이 하지 않나. 사실 이성애 애인 커플과 간다거나,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단청:**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끊어버리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 그들이 떠나갔고, 제가 경험하는 사회는 이야기가 먹힐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농활이 떠오르는데. 어르신들이 있고 연대하러 갔다는 것, 그리고 성추행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다. 단편적 예로는 내부 공유자끼리 연대인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대처하지는 방식이다. 사실상 회사라는 공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와 연관된 공간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데, 페미니스트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에서 내부적으로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할 것 같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대상화 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남성 페미니스트가 남성으로 패싱되는 몸으로서 목소리 냈을 때 전략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연대하고 남성성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서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어르신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 없이 불편한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게끔 차단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희룡의 말이 있으면 꼭 끊고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다. 단편적이지만 ‘여자가 술을 따라보라고 했을 때 다른 남성이 일부러 가서 ‘제가 따라드릴게요’ 해서 끊어냈던 경험이 기억이 난다.

**가은:** 여성들에게 연대하는 남성 페미니즘이 아니라.. 연대하는 사람으로 발언하는 것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서 몸으로서 남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이 그에 연대하는 행동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지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남성성을 벗어나려 노력을 했음에도 남성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 예로, 행진과 같은 집단행동에서 남성집단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트랙이나, 혼자라면 하지 않을 복장을 하고 같이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하면 돌출행동이고 일탈이지만 같이 하면 또 다른 맥락이 주어질 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저의 소망과 생각으로는 그런 식의 단체행동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연결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액션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질문자1:** 비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가은:** 일단 간담회 이름으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모여 어떤 식의 당사자성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후속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 애주가의 밤

## 애주가의 밤

by. 물감



여자가 술을 마시면, 강간해도 된다고?  
강간도 잘못이지만 술을 마신 것도 그만큼 잘못이 있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술도 마시고, 섹스도 합니다.  
술과 섹스에 대해 좀 말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섹스는 각자 합니다)

일시 :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10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계길 32-42 합정역 7번출구 인근)

인원 : 애주가(愛酒家) 40명 (사전신청자 선착순)

주최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

문의 : 가온 (기획단장) antialyakrape@gmail.com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술을 지참해 주세요.

### <패널소개>

“술 마시는 여자가 만만해?”

라라 (비싼 술을 좋아하는 맥주파)

“술X섹스? 괜찮은 조합이 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백목련 (내 몸에 맥주가 흐르네! 맥주파)

“섹스 왜 하나요? 술 마시기도 바쁜데”

이조 (천천히 마시는 것을 즐기는 양주파 (포냐, 비피터24))

사회자 : 잇을 (안주를 안 가리는 소주파)

# 잔!

잇을  
(안주를 안 가리는 소주파)



추운 날씨에 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주를 안 가리는 소주파 잇을이라고 하고, 한국 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셜펀치 모금을 통해 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물론 오늘 행사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주가의 밤>은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이 마련한 것으로, 3분의 애주가들의 여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보태어 주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진행되고, 뒤풀이 계획이 있으니 혹여나 급하게 마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편하게 섞여 앉아 있는데 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리인 만큼 불필요한 신체

적 접촉은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도 주의해주세요.

이 캠페인 활동을 하며,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해있는 현실, 실상을 알려내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여성 애주가에 대한 질타나 비난으로 엉뚱하게 번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좀 작작 먹어', '위험하게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오히려 꾸지람을 하거나 막연히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야기는 더 늘어날 필요도 없고, 더 늘어난다고 해서 성폭력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섹스는 성폭력이다' 라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의'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지요. '동의한 셈 치자' 라는 방식으로는 가까운 사이더라도 불쾌한 경험이나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은 매번 말로써 확인되어야 하는가?' 또는 '폭력적이지 않은 섹스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과 섹스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는 이야기를 해주실 세 분은, 비싼 술을 좋아하는 맥주과 라라, 내 몸에 맥주가 흐르는 백목련, 천천히 마시기를 즐기는 양주과 이조 님입니다.

라라 님은 여성 애주가가 겪는 부당한 경험들을 터프하게 이야기해주실 것이고요, 백목련 님은 '술은 거들 뿐' 섹스에 대해 이야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조 님은 기획단이기도 하며, '애주가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고 또한 애주가로써 술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동안 술 강요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할 때만 딱 한 번 짚-을 하지요  
짚! ■

## 술 마시는 여자가 만만해?

리라

(비싼 술을 좋아하는 맥주파)

안녕하세요. 비싼 술을 좋아하는 맥주파 리라입니다. 비싼 인주와 한 잔에 7000원 이상 하는 수제 맥주집을 좋아해요. 한 병도 아니고 한 잔에 5000원 이상 쓰는 건 비싼 거겠지란 마음으로 '비싼 술을 좋아하는 리라'라고 썼는데 지금 보니 보드카 그리고 다른 술들에 비하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연말파티 신년모임 시즌인데 다들 술 많이 마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에서 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하면 분위기를 못 맞추는 사교성 없는 사람으로, 무언가 결핍된 것으로 볼 정도로 사람 사이에서 술 마시는 건 당연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기관 페이스북 계정에서 폭탄주 제조법을 공유할까요. 술 한 잔 할래? 라는 표현이 친해지고 싶다는 제스처가 되고 신입생 환영회, 신입 환영식 등 어떤 모임이든 어색함을 푸는 윤활제로 술자리를 가지곤 합니다. 오늘 날 사회생활에 있어 술은 꼭 필요한 것으로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 못하면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으로 무언가 부족하고 사교성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서 결핍을 채워서 우리 모임의 일원이 되라고 눈치를 주거나 혹은 공동체에서 배제합니다. 과연 술 권하는 사회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집 앞 편의점만 가서 값만 치르면 구할 수 있는 게 술이지요. 대학가 풍경을 보면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신하게 보이기 위해 술에 대한 욕망을 꾀꾀 숨겨 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맛있는 술집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주는 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부쩍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자유로워 보일뿐 실제로는 여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범죄에 놓이게 하고 그 책임까지도 여성에게 묻는 일이 비밀비



재합니다. 아직도 여성이 술 마시는 것은 부적절한 행실로 여겨지며 남동생은 외박이 가능해도 누나는 오후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하는 불합리한 통금들이 존재합니다.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이 사회의 구조는 도무지 여성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술 마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거지는 조신해야 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면 안 되고, 여성이 술 마시는 것은 성적 접근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여지며 술 취한 채로 밤거리 돌아다니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서는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행동거지를 조신하게 하지 못한 여성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술도 마시고 섹스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말고 좀 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알아서 조심하는' 대신 불합리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술 앞에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여성이 술을 마시는 것을 성적 접근에 대한 동의 또는 부적절한 행실로 여기는 사회에 대해 함께 문제제기하며 여성 애주가로서 여성이 술 마실 때 겪을 수 있는 차별, 폭력 사례들을 살피며 대처법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여성 애주가로 사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술자리로 가기 위해 출발하는 것부터 투쟁은 시작됩니다. 여성이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은 부적절한 행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남자형제들과는 다른 통금시간이 주어집니다. 집뿐만이 아닙니다.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라는 공간조차도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행실로 돌리고 여성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예방하려 합니다. 2013년 기준 고려대 기숙사 통금시간은 남자기숙사는 통금시간을 폐지해 24시간 출입이 가능하게 한 반면 여자기숙사는 새벽 2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유는 부산대 여자기숙사 성폭력 사건의 영향을 받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로 여성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여성에게 안전한 학교, 밤거리를 만들고 더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집, 혹은 학교를 떠나 술집으로 이동해도 술집이라는 공간도 딱히 여성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는 행동은 여성스러움과 맞지 않는 것이니 술집에서 여성들은 배제됩니다. 물론 술집 앞에 여성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구글에 여성취향저격 술집, 여심저격술집 이라 검색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남성취향저격술집? 네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여성취향저격 술집은 있

어도 남성취향저격 술집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판매 전략을 짜서 구매층을 확보할 필요 없이 이미 술집이라는 공간 남성에게 우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술집의 기본 손님은 남성이라는 인식을 디폴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술집 화장실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술집들을 가보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남녀공용이라고 쓰여 있는 이 화장실은 문을 열면 남성용 소변기가 있고 여성용 좌변기는 칸막이를 쳐서 안쪽 구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 일 보러 화장실 가면 이상하게 남자 분들은 문을 잠그지 않아서 민망하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남자 분들은 민망해하기 보다는 사람들 들어오든 말든 화장실을 보고 가끔은 허리를 더 꺾듯이 들기도 하고 사람 기다리는 거 뻘히 알면서 화장실 안에서 남자들끼리 담배피고 시시덕거리며 민망해서 들어가지 못 하는 여성들을 보곤 합니다. 한 번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자 분이 기다리든 말든 화장실에서 담배피면서 고추 꺼내놓은 사람 때문에 결국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남자 있든 말든 좇까라 하고 화장실 봤다고도 합니다. 소변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도 수치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무서움 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을 조롱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인다는 건 이 이 사회에서 남성은 성적 주체의 위치에서 끌려 내려와 성적인 대상으로 놓이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 때문인 걸까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몰카가 있지는 않을까. 누가 들어와서 지켜보지 않을까.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분들의 호소와 대비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인간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됩니다. 여성이 인간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제 남성 다수는 여성에 대하여 그 인간성보다 그 여성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이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학교 선배든 직장 동료든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여성을 잠재적인 연애대상자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잠대상'으로 여성을 대하는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치근덕거리고, 얼굴과 몸매 등 외양을 평가하고, 옷차림과 생활 태도 등 개인적 영역을 지도하려 듭니다. 여성을 연애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공적 관계조차 분별없이 사적 관계로 치환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술자리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강화됩니다.

술을 마시다 흥이 오르면 어깨동무를 하거나 긴장과 경계를 허물고 평소보다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끌벅적함을 보고 있으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끼기 불편해요. 술자리에 있는 남성과 조금이라도 말을 많이 섞으면 다른 일행들이

뻘히 바라보고 돌이 나가라고 자리 비켜주냐는 농담을 합니다. 술게임에 저서 지목되면 러브샷 같은 벌칙을 시킵니다. 왜 하필 남자랑 엮어주는 건지... 동지적 관계라 생각하고 함께 술을 마셔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여성으로 인식되고 잠재적 연애대상으로 놓이며 성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술에 취한 것을 성적 접근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난감함을 피하기 위해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린다고 친근하게 구는 것이 오해를 사지는 않을지. 친구가 아니라 여성으로 위치 지어질까봐. 외출타기하듯 가우똥 가우똥 선을 지켜가며 경계하며 마시곤 합니다. 남성이 술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성이 술 마시는 것은 성적 접근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여지고 나도 같이 즐겁고 싶은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우리 사회는 술 마시는 여성에게 남성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문제될 만한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혹은 여자들끼리만 가면 술 마시러 가면 술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으며 시선강간 하고, 굳이 테이블로 와서 얼굴을 확인하고 갑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예뻐는데 보니까 별로네”, 혹은 “잘 안 줄 것 같이 생겼네.” 등 외모 폼퐁, 동의 없이 테이블에 앉기, 말 걸기, 소리 지르거나 샷대질 하며 시비걸기, 원치 않는 스킨십 등 혼자 혹은 여자끼리 술 마시러 가면 외로워서, 남자 만나려고 온 걸 거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서 놀아줘야 한다고 착각하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불쾌한 일을 겪게 되곤 합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걸으면 차타고 지나가던 남자들이 창문 내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고 가고, 잠깐 앉아서 담배피고 있으면 이차 나가는 애냐고 끌고 가려하는 등 온갖 각양각색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가장 신뢰해야 하는 관계인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술 마시러 가도 안전하지 않은 건 피차일반. 저의 경험에서 예전에 있었던 연애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이별한 연인 중에 너무 철벽을 친다고 차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인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라며 과일소주를 파는 곳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알코올 맛은 거의 안 나고 과일 맛이라 맛있다고 계속 퍼마셨지요. 애인한테 맛있는데 왜 안마시고 있냐고 마셔보라고 얘기했고요. 애인은 그런 저를 뻘히 보기만 했었어요. 다음 날 친구들에게 거기 술집 맛있더라. 얘기하고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냐는 얘기를 듣고서야 애인이 기대한 반응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때 제가 술에 취했다면 모텔로 데려갔겠지 싶습니다. 여성은 무성적 존재로 남성이 분위기를 만들고 리드하면 여성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로맨스로 얘기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그날

의 분위가 영화 예고편을 보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여성에게 술 앞에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철벽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여 주인공이 정말 경계하지 않고 술에 취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면 남성이 원할 때 쉽게 응하는 여성을 걸레라고, 헤프다고 비난하는 사회이니 여자에게 헤픈 여자라 하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요.

성관계를 위해 여성을 속이고 높은 도수의 술을 주문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폭력이 아니라 이성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작업 거는 것으로 미화되곤 합니다. 남성 잡지에서는 상대방 여성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이 버젓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남성용 잡지에는 여성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작업주, 독주(毒酒)를 제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사실상 잡지에서 강간 범행을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잡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소라넷' 사이트 때문에 시끌벅적했었죠. 만취한 여성을 골뱅이라 부르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강간, 윤간 하는 사진을 찍어서 소라넷에 실시간으로 포스팅 한다고 합니다. 이미 SNS로 다 본 내용들이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파괴하는 일이 가벼운 유희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니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만 같습니다. 술과 약물을 사용하여 고의로 한 사람을 기절시키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집단 강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를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보고 있기는 한 걸까요. 내가 술에 취하면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 하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술을 향한 애타는 마음. 여성 애주가의 길은 참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냥 난방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적당히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마른안주로 마음 맞는 몇 명과만 술 마셔야 하는 걸까요. 나는 맛있는 술을 마시고 싶은데!

위에 얘기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는 아마 계속 해서 술을 마실 겁니다. 여자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술 마신 네 잘못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를 억압하는데 에너지를 쏟기 보다는 제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다 어느 날 봉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가끔 두려워지는 순간도 오긴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마냥 무력한 쉬운 타겟으로 알아서 조심하고 두려움만

을 학습하기 보다는 맞서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만만한 여자로 보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맞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어느 날 깜짝하고 솟아난 것은 아닙니다. 성별화 된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큰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다리를 오므려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등 행동거지를 조신하게 할 것을 요구받으며 여러 제약이 생깁니다. 이런 제약들은 여성들을 화내야 할 상황에서 화내지 못 하게 만들고 혼자 삭이며 움츠리게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요즘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아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나의 욕구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크게 소리 내기. 팔 다리를 쭉쭉 벌고 공간을 넓게 써보기. 운동 한 가지 꼭 하기. 이런 연습들은 위기상황,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최근에 새벽 2시쯤 술 마시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웃어? 웃어? 소리 지르면서 시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하는 게 현명한 거라며 혼자 삭이며 다툼을 회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같이 소리질러줬습니다. 내가 웃는데 니가 뭐 보태준 거 있나? 고요. 욕을 하니까 놀랐는지 다른 사람을 찾아 가더라고요. 이 일을 주변인에게 얘기하니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남성들은 주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시비를 걸고 보통 방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당황한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체구도 작은 제가 감히 자신에게 소리 지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겠죠. 물론 내 역량을 강화하라는 것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됩니다만 두려움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상황의 판단과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유롭게 위해서는 위협의 실체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사용법을 익히고 힘을 기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방어훈련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가 술 마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맞설 때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성폭력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인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발제를 하며 술을 이용한 성폭력은 그 가해자 개인들이 나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적극적이고 리드해야 한다.'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수동적으로 따라야 한다.' 는 성 각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성관계를 넘어가기 위해 술이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 헤폰 년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회에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뉘앙스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술은 역할을 해왔던 거겠쥬, 그리고 남성들도 그런 비언어적 표현을 캐치하고 다음 단계로 리드하고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그러지는 순간 폭력이 되는 거지 않을까. 술 취한 여성을 골뱅이로 이야기하고 유희거리로 삼는 것도 여성을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은 여성이니까 창녀와 성녀 이분법 속에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저항 불가능한 여성에게 자신의 씨를 뿌리면서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거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력이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여성은 남성은 어때야 한다는 생각분을 깰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맺음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여성성 남성성을 해체하고 여자/남자 이분법으로만 바라보는 세상을 다시 찌는 활동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한 순간에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술 앞에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어떤 행동들이 가능할지. 단순히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술 X 섹스?

관찰은 조합이 되면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백목련

(내 몸에 맥주가 흐른다! 맥주파)

안녕하세요 저는 목련이구요 술은 거드는 이야기구요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 간담회 제안을 받았을 때 '술과 섹스'라고 하니, 저는 술을 먹으면 오르가즘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전에 매여서 뭔가를 생각할 때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가 즐겁게 연구하면서 새롭게 섹스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웹자보가 돌아올 때, 제 지인들 반응은 니가 애주가였어? (였어요) 저는 라이트하게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부어라 마셔라 (했지만). 저는 술을 마시면 술이 술을 먹는 타입이라서. 술 취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문자는 또박또박. 똑바로 눈을 뜨거든요 택시를 타서도 나는 잡혀가지 않겠다, 밖을 보면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앉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술을 먹으려면 편하게 앉아야 되는데, 술집의 의자들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만약에 간다면 앉을 수 있는, 폭신폭신한 곳으로 가는 편이고요 어쨌든 다들 쟁쟁하게 제가 애주가인지 아닌지를 토론을 하더라고요.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애주가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저는 퇴근하는 길에 맥주를 한두 캔 사와서 마시고 자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나의 기준에서는 애주가인데, 왜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애주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있는 저의 반려인간이, 니가 언제 나랑 섹스를 했다고 요즘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을 적게 마시기 시작한 것도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고 제가 작년에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가즘이 오지 않는 거죠

그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건강해야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단 첫 번째 몸이 피곤하니까, 오르가즘이 오지 않잖아요. 섹스는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110을 썼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0이잖아요, 그 때의 좌절감. 내가 지금 잘 잠과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0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 번의 좌절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일단 섹스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몸이 힘들니까. 아 그래서 건강을 지키라는 이유가 아프지 말자는 것 말고 여러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는. 저의 반려인간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보자. 월 초에는 늘 OK를 해요. 그런데 월 말이 갈수록 일이 쌓이면서 죽어가는 거죠.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는, 하다 2016년이 왔죠. 어쨌든 저는 올해에는 건강을 회복해서 이전의 주량과 이전의 오르가즘을 되찾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섹스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든 생각은, 저는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내 몸이 변하고, '언제 할까?', 어떤 느낌일까? 드라마를 보면 종이 울리고, '오르가즘, 뭘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섹스앤더시티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저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집에 가면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학교에 와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죠. 69는 뭘까. 물론 저희만 있을 때였죠. 여기가 머리아, 여기가 발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저희가 पार्ट너가 없어서 섹스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저의 친구 중에 한명이 섹스를 한 친구랑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본인의 이야기였을 텐데, 아마 저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친구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저희 특과원으로 그 친구를 보냈죠. 질 문리스트와 함께.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섹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아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정말 그럴까?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방학 공부를 신청했는데 저희는 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밤에는 비밀리에 섹스앤더시티를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스킨십이나 섹스에 스스럼없이 없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안 해봤으니까 그때는. 이것도 성인이 돼서, 나는 그때 나는 섹스를 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안 했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나는 이것에 스스럼없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



가 스킨십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나는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 친구는 되게 상처를 받는 거죠. 저는 제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킨십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애를 싫어하는 걸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 친구가 편해서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걸까? 이 감정은 뭘까? 를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은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은 스킨십을 거의 안하는 집인 거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만지지 않는 식인데 그 친구는 집에서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였던 거죠. 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친구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되게 좋아한 거죠.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고민을 안 해봤을까, 스킨십은 당연히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일까,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혹시나 싫어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고, 무엇을 안 좋아하고, 이것은 이 친구랑 할 때는 좋았는데 저 친구랑 할 때는 별로 안 좋고, 이 친구랑 좋았지만 이때는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성교육을 하거든요, 청소년들하고 수업 중에 어떤 친구가 저의 섹스 판타지는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죠. 그런데 강사가 없다고 하면.. (웃음) 그건 노코멘트야, 그건 내 프라이버시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왜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자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스물한 살 때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도 자위를 시도해본 적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의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TV 속의 구성에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한번은 그 분이 청소년들하고, 10대 남성들 10대 여성들과 성에 관련한 토론회 같은 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자위하죠?' (당연한 듯이) 하는데 여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위...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자 친구들의 대답이 저는 하지 않지만 여성이 자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감으로 자위를 시도해봤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앉아서 이불을 펼쳐놓고 손가락을 삽입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거죠. 아 이게 자위인가? 아 그러면 별로인 듯, 하고 넘어갔죠. 그게 한 열서너 살 때? 침대 초반의 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하고 섹스앤더시티를 가지고 열면 토론을 하는 외중에도 자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보던 섹스앤더시티를 스물두 살 여름쯤에,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만다라는 프리섹스주의자인 여성이 자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전 시즌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이 사람이 자위하는 것을 왜 못 봤을까. 그러면서도 왜 난 늘 어떻게 자위를 하는지 교과서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때부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섹스를 했을 때 오르가즘을 느꼈지만 자위를 하면서 좀 더, 제가 어떻게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기계적으로 잘 알게 된 거죠. 자위할 때 저는 최대한 빨리 오르가즘을 느끼는 편이어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해하는 데는 단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코르셋 같은, 벽 같은 것을 치는 것도 있고, 별로 계발이 안 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닦여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쓱 쓱 다 흘러나갔던 거죠.

그리고 섹스 했을 때 최악의 파트너들은, 마초들. 분명히 마초들이 가지는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그 매력이 침대에만 가면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통나무처럼 굳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꾸 자기검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애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움직여야지, 하지 말아야지. 모르는 척.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제 욕구를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나를 좋게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너랑 하면 통나무랑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데 나한테 통나무라고. 그때 약간, 나는 이런 타입이랑 사귀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반려인간한테 고마웠던 것은 저랑 섹스를 하면서 하루는,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왜 신음소리를 그렇게 푹푹 참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음소리가 되게 큰 줄 알았거든요. 내가 푹푹 참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소리를 더 내봤죠. 아니 이걸 좀 오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하면서 신음소리를 신경 쓰면 감각이 여기 뇌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르는 대로 소리를 내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랑은 이야기를 좀 해 볼 수 있겠다.

사실은 이 반려인간은 저를 별로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긴장되니까 자꾸 술을 마시고 이 친구와 섹스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이 친구를 집을 못 가게 해야 하나까 자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섹스도 좋지만. 그런데 이 친구랑 아무리 해도 오르가즘이 오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술이 안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친구와 친해지고 나서는 '너가 오르가즘을 참는 것 같다' 는 이야기. 그리고 술을 마시면 오르가즘이 안 오는 것 같아서 한 잔만 마시면 어떨까, 한 모금

만 마시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친해지고 나서는 그런 것을 해봤던 거죠. 오늘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라든지. 저는 섹스 할 때 버릇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말을 하면 흥이 깨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섹스하기 전에도 이야기하고요. 갑자기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섹스한 후에는 늘 약간의 평가회의 같은 것을 거쳐요. 오늘은 이런 것을 시도를 해 봤었는데, 이것은 시도가 좀 별로인데, 이것은 다음에 해보자 라든지. 서로 공부해오는 거죠.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이 친구는 외국에서 책을 구해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왔던 거죠. 연구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고, 맨 처음에는 좀 낮이 간지럽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했는데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몸의 반응을 보는 거죠, 계속 민감하게. 그래서 동시에 오르기즘이 온 적은 없지만 내가 상대방의 오르기즘을 오게 하리라, 말리라. 오늘의 과제는 너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서로에게 연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섹스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몸이 건강할 때.



옛날에 누군가가 오래된 파트너와 섹스 하는 것이 섹스가 더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구라치

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게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는 파트너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아니면 서로 미묘한 소리나 몸짓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파트너와 섹스를 하면 조금 더 내가 솔직해질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본인의 욕구를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 저의 판타지가 뭘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발가락도 한번 시도해 봤구요. 그런데 별로인 거죠. 발 씻었나, 깨끗이 씻었나, 세균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요즘 스타킹을 신었나 안 신었나. 어쨌든 제가 섹스를 하게 되면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는 판타지 말고, 여러 가지, 등을 애무해보거나, 엉덩이를 해보거나. 그때그때 다르고, 그때그때 사람이 꽃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감각도 다르고, 아니면 너무 섹스에 몰두한 시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오르가즘이 되게 더디게 오는 것이죠. 몸이 약간 역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계속 자극을 했을 때 자극에 무뎠다는 것이 있는데 한 한두 달은 참아 봤었던 거죠. 계속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상황. 혹은 실험을 위해서는 내가 내 욕구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이때 내가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하면 좋았나, 싫었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파트너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내가 어제 개랑 어디까지 갔는데' 이런 것 말고 '나는 이런 자세를 했을 때 되게 좋았어.' '어 그래? 나는 이런 자세가 있었어, 이런 류의 생산적인 섹스도 좀 생산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재생산 말고 우리의 생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의 소원은 술이든 섹스든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2016년에는 술과 섹스가 충만한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섹스 왜 하나요? 술 마시기도 바쁘는데

이조

(천천히 마시는 것을 즐기는 양주파 (코냑, 비파터24))

안녕하세요, 저는 이조이고요. 목련님과 반대되는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성애자 거든요. 성적 이끌림, 성욕도 느끼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처음에 간담회 초청이 왔을 때 아 캠페인 팀에서는 누군가가 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저는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론 중심으로 썼다가 지난번 남성성 김장하기 집담회 때 '우리는 실천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짝 다 뜯어고 치려고 했는데, 짝 다 뜯는 것까진 됐어요, 근데 고치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무성애자 라는 위치에서 내가 술과 섹스 그 연관점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벤트 이름이 애주가의 밤이지 애주가의 난교 파티는 아니니까.' 그래서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향성을 잡았죠. 애주가, 술을 사랑하는 사람.

제 이야기는 초점을 애주가, 여기에 두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애주가라면 이 간담회, 그것을 넘어서 이 캠페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주는 술 문화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그들의 경험을 가장 크게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같이 마시는 사람이 주사가 진상이다. 그러면 술맛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같이 마시는 사람이 재밌어요. 그러면 술이 더 잘 들어가다시피 하는 거죠. 물론 저처럼 친구 없는 것처럼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술과의 접점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애주가들이 술을 제대로 즐기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최우선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간담회의 이득을 보는 여러 집단 중 하나가 애주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선배든, 회사 다니면 부장님이든 강요를 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특히 캠페인의 주 초점인 성폭력적인 면으로

인해 술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한잔 걸치면서 대화이든 섹스든 즐기는 애주가라면 이런 부분은 윤리적 옳음을 떠나 어찌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쳐나 가야 하는 점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애주가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진입장벽은 라라 님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으면서도 교묘하게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나 성인이라는 나이가 되고 돈만 되면 술을 사서 마실 수 있지만, 술의 완전한 정복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도, 보이지 않는 벽들도 존재하기도 하죠. 제가 와인을 가져왔는데 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와인이라는 술 한 종류만 즐기려고 해도 이 와인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랑 페어링을 하고, 이 지역의 와인의 특징은 어떻게,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라 누구나 와인을 사서 마실 수는 있지만 제대로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적죠. 또한 술 문화의 진입장벽은 있죠, 문화적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다보니 회식 때 아저씨들과 술을 같이 마셔야 하는 상황들이 오는데요. 같이 마시다가 이분들이 뭐 오바마, 이런 것 외치면서 건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부장님이 하자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잘 못하고요. 제 입장에서 그 술 문화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번은 대학생인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어찌다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합석을 하면서, 저희가 랜덤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이 시간에 베라가 여나' 하면서 주섬주섬 챙기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문화란 것은 단일한 것이 아니고 집단에 따라 그 특징들이 보이는데 그 집단의 술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술을 즐기기가 어렵죠. 특히나 마시면서 배우는 랜덤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별주 몰빵 맞아서 아주...

근데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특히나 술과의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들에서의 술에 대한 투명한 벽들도 존재하죠. 라라 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그러한 벽들이 존재하듯이, 퀴어적인 입장이나 무성애자라는 입장에선 또한 보이지 않는, 직접적으로 술과 연관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우리가 술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길을 가로막고 접근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완고한 벽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애주가란 위치가 이런 진입장벽을 넘거나 통과하거나 자기의 간 건강을 통행료로 내서 진입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일지라도 그 위치는 어떠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 문화 내부 지형에서는 애주가들이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허물거나 아니면 술 문화의 지형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위치를 점령을 하기에 그 위치에 따른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술을 사랑하고 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하고, 술 문화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애주가라는 타이틀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술 문화에서. 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보이고 당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술과 성폭력은 점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술의 언어, 그리고 그 술 문화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언어들과 성폭력의 언어들, 님은 점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박기량이라는 치어리더가 한 이야기 중에서 남성 팬이 '여자니까 술 따라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맞이다, 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상 굉장히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접점이 있죠.

또 한국 술 문화에서 가장 많은,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강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술 강요를 많이... 저만 많이 당해봤나요? 저는 매번 회식 때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장님이 저를 안 보내주세요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동의', 보통은 섹스에 적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러한 동의의 개념을 술에서는 아예 적용을 시킬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동의라는 개념이 무시가 되고 철저히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거죠. 술을 마실 때 강요하고, 동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모습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접점이 드러나는 그 언어들, 보시면 어쩌면 성폭력의 언어가 술의 언어에 침투한 것인지도, 혹은 술의 언어가 성폭력의 언어를 지지하는 역할로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순 없으나 애주가들이 고쳐야 하는 지점의 하나로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술 문화의 변화는 애주가들이 혼자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이 계신데 역시 주류업계 종사자들이죠. 어쩌면 애주가들보다 더 중요하게 이 변화 이끌어내는 데 있어 활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1월 9일에 1차 아마조네스 자경단 활약을 했는데, 술집들하고 바들에 가서 종사자들과 일하시는 분들한테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을 하였어요. 이제 주류업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애주가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하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좋은 술집 선정하는 방법, 좋은 술집 추천 그 다음에 좋은 술집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칵테일에 대한 건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바/술집의 기준은 일단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진상손님을 다루는 태도. 특히나 대형 체인점 바를 가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손님 대 웨이터 직원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손님들은

너무 많고 직원들은 너무 적고 손님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한 진상 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인원부족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좋은 바들은 이 비율을 굉장히 잘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 진상 손님, 술 취한 손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 취한 손님들이 진상을 부러도 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술 취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뭘 시키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술 취한 손님 잘 걸리면 정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바텐더가 항상 보이는 구조의 바가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텐더가 보이지 않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텐더가 술을 제조하는 과정하고 바에서 손님에게로 술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미지수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러한 바를 가지 않았다, 너의 책임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어찌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위험한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서 조심하고 안전하고 챙기는 것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것과,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책임이다 라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바텐더가 항상 보이는 바의 구조라는 것은 사실상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구조를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텐더가 항상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의 술에 이상한 것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항상 볼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그런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바 구조를 선택을 해서 바텐더의 위치를 선점을 하고 내가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손님의 안전을 생각한 바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바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시키는 술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바. 그러니까 칵테일을 시켰을 때, 이 칵테일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냐고 했을 때 도수는 몇이고, 무슨 술이 들어갔고, 주스는 무엇이 들어갔고 리큐어는 무엇이 들어갔고,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바가 좋은 바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쓰는 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 술은 부드러워서 여성들이 마시기 좋은 술입니다. 사실상 이런 표현의 문제점이 무엇이나면 누구랑 가는지에 따라서 표현들이 바뀌거든요. 저랑 친한 여성 분이 술집을 가면 항상 저를 불러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기가 처음에 술집에 들어가서 룽아일랜드아이스티를 시켰을 때 '이게 달지만 굉장히 독한 술인데 괜찮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저보고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시키고 웨이터에게 묻자, '아 되게 달달하고 부드럽고 여자들이 마시기 되게 좋은 술이에요', 하고 설명이 바뀌더라고요. 룭티가 대충 술 들어가는 도수가 20-65%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소주랑 비슷한데 술맛이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마시고 취하기 쉬운 술, 빨리 취하는 술인데 그것에 대해 아 부드럽고 달달하고, 이런 설명이 아니라 도수 몇 퍼센트, 진, 럼, 보드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술집들은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칵테일에 들어가는 정보를 물어봐요, 친구들이. 칵테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 칵테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구글을 검색하세요. 웬만한 정식적인 칵테일들은 위키백과 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글로도 그렇고 아니면 구글 검색에 떠요. 그래서 주 도수가 몇인지, 무엇이 들어가는지, 뭐든지 파악이 가능한데, 구글 검색했는데 안 났다 그러면 다소 야매적이고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칵테일은 피해갈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을 마시는지에 대한 정보파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무엇을 마시는지를 알면 술자리에서 내 즐거움을 최대한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가장 빠른 것이 구글 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편하기도 하고요.■

녹취: 하은



**잇을:** 세 분 너무 재미있게 발표를 해주셨네요. 일단 애주가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목련 님도 충분히 애주가이며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모두 애주가가 맞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술을 마시고 즐기는데 있어서도 기본값이 남성으로 되어있다! 또 '내가 먹는데 너 보태준 것 있냐' 이진 실제 라라 님이 했던 육성,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목련 님은 섹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술은 거들 뿐이라고 하신 것처럼 술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술과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말씀해주세요. 연구하는 섹스, 데이터를 축적하는 섹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조 님의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몰랐을 것입니다. 애주가의 밤이라는

이 행사에 오면서, 내가 애주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셨겠죠 나는 애주가이고 내가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아 나한테 애주가로서 이런 책임이 있구나' 라는 건 오늘 와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술 문화는 좋고 어떤 술 문화는 분명히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즐겁게 술을 마시고 애주가의 세계로 진입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도 다소 취해가고 있고 이미 심장이 빨리 뛰는 분, 얼굴이 빨개진 분들이 계신데요 편하게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궁금하다 또는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 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야기해주세요.

**만다린(기획단):** 의문이 든 것이 아무래도 저는 술을 전혀 안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브라더소다를 마셔도 취해요. 브라더소다조차도 저에게는 독한 술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조 님이 이 술은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도수는 이렇고 혹은 강하다 세다 알려주는 바텐더가 좋은 바텐더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하다 세다는 개개인의 주량 차가 있지 않을까?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질문자1:** 바텐더들의 개개인의 양심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무엇이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주면 바텐더가 좋은 바텐더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이조:** 바텐더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느 정보를 내가 요구했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바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술의 도수가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바가 아닌 바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바텐더가 도수가 몇인지 알고 대답해줄 수 있는 바를 선호하죠.

**가온(기획단):** 저는 바텐더하고 바에서 대화를 해본 것이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바에 앉아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는 게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진입 장벽이 있는 일 이었고, 그냥 친구들이랑 가서 맥주와 소주를 시켜 먹기만 했었지 바텐더와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 최근에 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을 해보고 나니 한국에서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한 거예요.

이 캠페인을 하면서 처음으로 동네 바를 찾아가봤어요. 애주가 간담회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 바에 가서 혼자서 칵테일을 시켜 먹어보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어디 어디 바가 있다고 해서 그 장소에 가니까 그냥 바 라고만 붙어있고, 지하로 가는 계단만 있고 불도 깜깜하고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모르겠는 곳이었

어요 인터넷 후기가 좋았으니까 내려가서 칵테일을 시키기는 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문이 열었는지 닫혔는지 모를 공간을 혼자서 들어간다는 것이 진입장벽이 있는 일이었겠죠 바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술에 대한 경험담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질문자2:** 저는 그런 바라고 이름이 붙은 유흥업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칵테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바를 열심히 찾았는데 토크 바 그런 데 밖에 없어서 들어갔는데, 남자직원 분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술을 한 잔 마셔도 되나요 했더니 된다고 해서 앉았어요. 바인데 칵테일이 없대요. 그래서 병맥주 들고 마시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직원 분이 되게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 내가 말상대를 해줘야 이런 표정으로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맥주 한 병 칠천 원 주고 먹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가 거길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질문자3:**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년 전에 룸싸롱에 경리 알바를 했었어요. 경리실은 부스 타입으로 되어있고 내부에는 경리만 있을 수 있는 형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범죄수사단, 매우 훌륭한 미드인데 거기서 권력관계 성폭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룸싸롱이라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함께 오는 장소거든요.

저의 룸싸롱은 당시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애도 가고 채도 가고 다 가!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 저는 좀 곤란해요 하는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막 욕을 하며 너만 깨끗한 척 한다고 난리를 하고 결국 결제를 하시고 근데 갑자기 그 못 가신다고 하신 분이 후시 전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노래도 안 들렸으면 좋겠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하셔도 된다 하셔서 전화를 했는데,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다 터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다,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해서. 저한테 나랑 2차를 갈 분을 불러 달라 해서 언니를 데려갔어요. 같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못한다,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언니가 그럼 환불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환불 안할 거래요. 어차피 다 지불했고 내 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사실 언니 잘못네요, 뭐 이런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상하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거든요. 권력자가 동성인

남성에게 가했던 여성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그런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질문자4:** 저는 게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강간을 당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처음 종로나 이런 곳을 알게 되고 너무 신나서 종로에 가던 시절, 동시에 저의 주랑에 대한 굉장한 과신을 가지고 있던 그 꼬꼬마 시절에 술을 잔뜩 먹고 종로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모텔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가 떠난 후고 너무 놀랐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콘돔이 있는지 휴지통을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패닉이 된 상태에 있는데 쪽지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좋았다는 뜻이.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에게 친근한 뜻이 말을 거시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싫은데 ‘이걸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성폭력이 맞나?’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알고 지내던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웃음거리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술을 너무 먹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알게 되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열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많은 남성들은 저를 뭐랄까요, 올바르게 않은 표현인데 일종의 여성으로 간주 하거든요, 어떤 그 순간에. 그리고 되게 많은 제 주변 게이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 네가 뭐 임신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너 원나잇 좋아하는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일종의 제약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조심해야 하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생각으로.

**질문자5:** 맥심 같은 경우에 남성들에게 작업주를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여성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여자들에게 원나잇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처법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상황이 여자가 기억이 없는 거였어요. 여자가 일어나보니까 모르는 남자랑 모텔에서 눈을 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였는데. 그렇다면 그 여자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전체가 깔려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폴 워딩이 기억이 나요. 당황하지 말고 세련된 도시 여자인 것 같은 애티튜드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욕실 거울에 치약이나 립스틱으로 너 좀 서툴더라 이렇게 써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보는 텍스트나 콘텐츠에서도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스무 살인가 나이트클럽을 친구들을 따라갔다가, 어리니까 아저씨들이 있는 방으로

넣더라고요.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양주를 따 주면서 이것을 먹어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워낙 술을 못 마시니까 무조건 안 먹겠다고 버텼는데 거기서 친구 한 명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을 탄 것 같아요. 네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넘어가고 나머지 세 명이 멀쩡한 상황이니깐 그 때 혼비백산해서 밖에 전화를 하고 빌면서 나갔죠. 그 상황에서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절한 친구를 업고 나왔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것을 신고를 해서 뭘 먹었는지 알아내야 한다든가. 그냥 저희는 도망친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고, 하다못해 그런 잡지에서도 기억 안 나는 원나잇을 쿨하게 넘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의외로 많아요.

친구랑 같이 술집에 갔을 때는 거기가 외국이었는데 자리 잠깐 비운 사이에 술에 뭘 넣어서, 그런데 너무 많이 넣어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다른 일이 안 생겼거든요. 자기 땀에는 시간에 걸쳐서 취하면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경험이 벌써 두 번이나 있는 거죠. 제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제일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어쩔 때는 심지어 나는 술을 못하니까 다행이지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좀 안전하지, 한 잔만 마셔도 시뻘개지니까 못 주죠. 한번은 자꾸 주는 사람한테 토했기 때문에. 두 잔 이상 먹으면 호스를 틀어둔 것 같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더 이상 안 주긴 하던데. 그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걸 범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좀 다행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맨정신으로 (섹스를) 왜 못 하나, 라는 칼럼을 썼었는데 악플이 좀 많이 달렸어요. 남자들을 왜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냐, 이런 게 있었었는데. 과연 여자들이 안전하게 술을 좋아하면서 마실 수 있는 상황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캠페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술도 못 마시고 연애도 안하고 섹스에도 관심이 없지만 일단 따라왔습니다.

**가온(기획단):** 술 문화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술이랑 섹스, 특히 여성이 한 덩어리로 묶이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냥 정말 술을 술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인데. 여성들은 대개 후자 쪽으로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는 반면 남성들은 술이랑 여성이 묶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거나 압박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력적으로 섞여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주가 문화라는 것이 성과 엮이지 않는 방식으로, 섹스 얘기를 하더라도 성폭력적인 방식은 아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스스로도 가지고 싶어서 기획을 한 것도 있었어요.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한다는 것이 성폭력 밖에 없는가, 여성들이 성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꼭 성감만을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골뱅이에 대한 인터넷 글을 여러 가지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여성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나 말도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 정말로 어떤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섹스를 즐긴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성폭력이라는 것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는 동의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엄밀하게 동의를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성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동의를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 같은 것들을 갖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한 것이 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6:**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을 좋아하는 여성은 스스로 두 가지 가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려야 하고, 술을 좀 감춰야 하고 실제로는 좀 성도 즐기고 싶고 술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만취도 했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걸 다 강간으로 봐야 하는가? 예민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반론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즐긴다, 쿨하다, 패션잡지에서 말하는 그런 것 말고, 피해자로서 피해를 당했음을 호소하는 지점 말고, 지금 일상 속에서 술도 좋아하고 성관계도 좋아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내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피해자로 봐야 하는가 라는 약간 예민한 지점에서 그 성적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아예 꺼낼 수가 없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일종의 자신한테는 방어 기제예요. 방패예요. 최근에도 살인사건... 술에 취해 남자친구하고 있다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친구는 그거예요, 왜 위험한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 여자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저도 모르게, 그 친구랑 저랑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술 마셨던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위축되는 기분? 아무래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더 실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전제조건에서 술을 안 마시는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여성들에 대해서 보는 복잡한 시각들이 있는 와중에서, '나는 근데 그래도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취를 하든 안 하든 즐기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만취했을 땐 무조건 피해자로 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1:**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피해자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전제, 가이드라인이고,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피해자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의 본인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대상, '개가 그랬다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약간,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그냥 나는 용서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것은 이차적인 측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일이지 일단은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7:** 지인의 경험인데요 지인이 만취를 했어요 그런데 강간 피해가 있는 거예요. 심신미약 상태,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고 근데 기억이 정확히 난대요. 그 남자가 물어본 거예요. 성관계를 하자고 근데 동의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기운에 동의를 한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그 동의를 정신상태가 맑은 상태의 동의를 아니에요. 얼떨결에 동의하게 된 거죠. 저는 만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동의를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문자6:** 술을 즐겼을 때 감정이 들뜨고 즐거운 감정, 그건 남성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성관계를 갖고 싶어' 라는 그 감정, 그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둘 다 어느 정도 만취했을 때, 우리가 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선이 어디일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 취해, 우리 취할 수 있잖아. 난 취했을 때 뭔가 좀 호감을 느껴.' 취하지 않고는 연애가 안 된다는 공간의 이야기들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이주:** 동의를 이야기할 때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 도중이어도 내가 동의를 철회한다 하면 상대방은 멈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이 되는 건데, 이 동의를 철회를 한다는 것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나면, 내가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취했다는 상황은 엄연히 따지면 그에 따르는 판단저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저하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동의를 철회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는 어떠한 성폭력적이지 않은 섹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굉장한 회의감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난감한 게, 저는 무성애자로서 이런 섹스를 전혀 경험을 할 필요가 없고 딴 세계 이야기라서 굉장히 이론 중심적이고 원칙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해요. 특히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술을 잘 몰랐을 때 누구나 술 취하고 후회할 짓을 해봤던 경험이 있을 것 같고, 그 술에 따르는 판단저하에 대해서는 알 것 같고, 그러면 그것



을 동의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예요.

**가은(기획단):** 약간 방향을 바꿔서, 성폭력이나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과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개인 사이에서는 성폭력이라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훨씬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여성이 성을 즐기 위해서 왜 술을 마셔야 하는가, 아까 라라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성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임으로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취하기 쉬운 전략이라는 면 그래서 이것이 남성들이 성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여성들이 뭔가 수동적이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성 관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 성별이분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과 성적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잇을:** 시간이 아쉽네요. 약 20분 안에 재빠르게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자6:** 저는 만약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일 때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 커플도 ‘야, 우리 오늘 섹스하자.’ ‘그래 하자.’ ‘그래 침대로 가자.’ ‘그래 하자.’ 그런 언어적인 표현보다, 지금 여기서 섹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눈빛이나. 사실 상대가 지금 나와 섹스를 하고 싶어한다 라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성관계는 전부 다 성폭력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만 여성도 자기가 원하고 즐기고 싶으면 당연히 즐겨야 되잖아요. 즐겨야 하고 즐기는 게 맞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언어적으로 해야 하는가? 성 엄숙주의, 여자가 즐기는 것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8:**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술이라는 것이 관계에서 윤활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때와 술을 어느 정도 먹고 사회인으로서의 가면이나 여러 가지 틀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나는 굉장히 다르고, 그럴 때 내 여러 가지 욕망에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술을 많이 먹었죠. 그래

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술을 먹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억압 때문에 어떤 성폭력, 술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늘 '그 여자의 잘못이다' 라고 결론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도 '그래도 술을 많이 먹으면 위험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술을 어느 정도는 먹고 나서 하는 섹스가 훨씬 편안하고, 술과 섹스를 연결시킬 때 성폭력과만 연관시키는 건 너무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이야길 하고 싶지만 취기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백목련:**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성관계란 뭘까?, 각자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성관계의 정의와 의미가 너무 달라서 무엇을 피해로 볼까, 뭘 폭력으로 볼까, 어떤 것이 즐거운 걸까, 이게 굉장히 많이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누군가에게는 안 즐거운, 뭔가 회색지대 같은 것이 있거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불편함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폭력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운 걸까?, 무겁지 않은 무슨 말로 바꿔야 될까?, 뭘 동의라고 봐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집에 가서 나에게 성관계는 어떤 것이고 이게 나한테 주는 건 뭘까 생각해보자. '성기 삽입' 이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것이 성관계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성관계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별로 나한테는 성관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 서로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 또는 성관계라는 것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만큼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청(기획단):** 저도 전략적으로 술을 사용하기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다가와라, 이런 방식의 표현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취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사람도 나에게 대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통이든, 앞서 말씀하신 비언어적 표현이든, 계속 확인을 했던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관계에서든, 섹스를 할 때도 우리가 언어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지, 지금까지 나는 관계에서 어떤 느낌들로 이것들을 표현했었는지,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을 생각해보는 것... 그게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세밀하게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기 어려운 거고 그조

차도 노력을 안 한 상황에서 동의를 얻어내야 돼, ‘오케이 했지?’, ‘오케이, 섹스해’, 이 자체가 사실은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자9:** 저는 술 마시고, 눈빛으로 너 오케이, 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랑 저랑 처음이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번 확인을 해야죠. 돈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돈거래를 서너 번을 했어, 이번에 5퍼센트 나왔어 빨리 와 콜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구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기본이에요. 제가 원나잇을 해본 경험에서도,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 괜찮냐고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진짜진짜 괜찮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질문자7:** 저도 술을 먹고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들이 자신이 가진 성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이 술도 좋아하거든요. 술 먹고 관계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술을 먹기 전에 이미 자기가 성적인 관계를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면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술 먹고 성적 어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 여기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여자 분들도 아하게 입는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 썩 년이라든지 더러운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싫거든요. 아하게 입고 다니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욕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가 성을 금기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잇을:**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발제자 분들의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이조:** 예상은 했던 바지만 이 주제가 술과 섹스 쪽으로 많이 흘러서, 술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섹스를 하지 않는 저로써는 난감한 주제로써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저랑 너무나도 접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얘기고 저로써는 어떻게 보면 접할 기회도 굉장히 적은 얘기거든요. 약간 원칙주의자이다 이론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술과 섹스 적정선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저로서는 처음 듣는 것이었고 제게 많은 생각을 할 계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련** 저도 취했군요.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성에 대해서 아직 안전이라는 문제가 걸려있다고 느꼈어요. 시도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로 가기보다는, 성은 아직 누군가는 즐기지만 누구는 즐길 수 없는 것,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덜 위험이 되는 것, 이러한 프레임 속에 아직 간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즐겁게 이야기하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이 더 담보가 되어야 될까, 왜 다 다르게 생각할까, 왜 다 다르게 의미를 가져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에 축적해 오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뿌리를 잡아서 타고 타고 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우리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 왜 위험할까, 그런 것들이 아쉽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치고는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리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화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서요. 우선 얘기를 들으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남자가 섹스를 하자고 할 때 예, 아니오 이 두 가지로만 답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식의 여성을 '힘없는 존재로 프레임하는 것이 정말 여성의 삶에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얘기해주셨지만 술 마시면서 눈치 봐야 하는 그런 것을 벗어던지고 제 욕구에 솔직해

저서 성관계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난 피해자인 건가 라는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쨌든 우리사회는, 성관계를 했을 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하면 사회적 시선이 따듯하지 않고, 여성은 조신하고 경계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회가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고민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있을. 오늘 외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조:저랑 너무나도 접점이 없던. 저가 흥미로운 적은 이야기. 원칙주의자, 이노브니 주의자. 소드르 고+섹스를 그것을 반대하는 이밖, 적정, 서능, 찾옥 처음 듣는 이야기. 그 처음 듣는 dildirl 감 사하다.

모결:취했군요 얘기를 한 것을 들으며, 성에 대해 안전이라는 것의 a문제가. 즐긴다 시도할다가 보단 누군가는 느끼지마나, 누군가에게는 덜 o히키비되는 것. 조력배 이야기. 하려면 무어시 되 야 하까. T o 금하. 계속해서 축적해오는 것. 어떻게 이겨승로리스를 자 o바서 타고 갈 수 있오르지 구축드해지는 시간. doh 우리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 o직까지 오혀날. 이슈 취한 것 치고는 잘 이야기 기함. 듯

나냐:p자 이야기를 들으며 소화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예 아니 오 두가지만 나오는 것. 아니다. 제대로 새악. 할 수 o는 상태. - o. n. s. | o의 o. r. s. 힘없는 조 재로 프레임이 하. o.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수. 을. daktlausTKGHLDPTJ NSCLQHKDI GKRH RMFJS RJEMFDMF QJTDJEJSWLRH WP DYRRDP TJFWLRGOWL RH RMFJS RJTDLSEP RMFJ AUS SKSMS VLGOWK DLS RJTDLSRK DLFJS DLDIRLFMF GKFAUS DNFL KGHLSMS DNLF TKGHLMS AEHDKRADUG DUTJDDMS SKAJTDRHK EKFKFL DLATLSKGF T DLTrH, DUTJDDM LDLTALGS

그 날의 속기

# 동의하고 하는 행진

## 동의하고

1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  
(2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 하는행진

1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감  
2 어떤 사건이 계속해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동의하는 만큼 함께하는 행진이며,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6. 2 14 PM 14:00~16:00  
@ 서울 신촌 연세로 (신촌역 2, 3번출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  
문의: 02-338-2890~2, antialyakrape@gmail.com



### 만취퍼포먼스

과성 + 각종  
물젓

피켓팅  
고양이도  
한다...

❓

지마  
뒤집기

2016. 2. 14  
서울 신촌 연세로  
\* 동의하는 만큼 함께하는 행진이며,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만취퍼포먼스

1. (음악에) 취한다.
2. 동시에 쓰러진다.
3. 피켓을 든다.

지마  
뒤집기

1. 꿀떡인다.
2. 자유롭게 들춘다.
3. 함성(과성)과 함께.
4. 스카이댄서처럼.
5. 할말을 하러.

2016. 2. 14  
서울 신촌 연세로  
\* 동의하는 만큼 함께하는 행진이며,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 동의하고 하는 자유발언

antialyakrape@gmail.com  
으로 자유발언도 신청해주세요!  
(행사 취지에 동의하는  
3분 미만의 내용으로 준비해주세요)

연세로 복단 (횡단보도 앞)  
15:30 공연/자유발언  
14:30 행진/퍼포먼스  
14:00 공연/자유발언  
13:00 거리캠페인

명물거리 (중앙)  
신촌역 2.3번출구

2016. 2. 14  
서울 신촌 연세로  
\* 동의하는 만큼 함께하는 행진이며,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키라라

키라라(KIRARA)는 최우선과 최비트를 기반으로 향방하고 직관적인 사운드를  
몰아주고 있는 한국의 전자음악 프로젝트입니다.  
\* 이브고 강한 음악이라는 케치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승은

솔직한 신승은입니다. 돈강동에 살고 있습니다.

### 코스모스슈퍼스타

코스모스슈퍼스타는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직관 곡을 쓰고 노래합니다.  
2010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공연해왔습니다. 순계이점의 공간과  
신스합의 총거울, 그리고 동화적 감성으로 무장하여 곧 무주를 정제할 예정입니다.

2016. 2. 14  
서울 신촌 연세로  
\* 동의하는 만큼 함께하는 행진이며,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

이 글을 쓰는 오늘, 캠페인이 다음 메인에 실렸다. 네이버에서는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로, 네이버에는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오르기도 했다. 기사마다 댓글전쟁이 엄청나다. 네이버의 경우 베스트댓글에는 대부분 캠페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글이 있지만, 양적으로



보아서는 강간에 '피해자 여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여성이나 페미니즘, 또는 이 시위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reas\*\*\*\*

옷차림이성충동을 야기하는건 사실입니다. 당연한거아닙니까? 우리는생물이예요. 문제는 그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사람입니다. 그럼 99프로가자제되는데 1프로가안되면 그1프로를 저지른 형무소가서 옥하면되지 왜 무고한남성을옥하냐구요. 그1프로때문에 옷차림조심하라고하는겁니다. 괜히 000앞에서 성욕구 불씨붙일일없지않습니까.갈가는 남자붙잡아서 물어보십시오. 강간범 옹호하는사람없습니다. 우리남성들은 강간범을옥합니다. 패족일놈이라고 여성편들겠죠. 저운동은 방향부터 글렀습니다

6일 전 | 신고

답글 4

 2  6

duve\*\*\*\*

한국 페미들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편한것에만 열올리는 한 당신들의 주장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겁니다. 왜 여성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짊어지게 해달라, 여성도 군대나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 남녀평등을 넘어 인간평등으로 가자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겁니까?

6일 전 | 신고

답글

 3  4

heio\*\*\*\*

아 진짜 무개념 메갈년들 나도 베틀이들은 개극혐이지만 한마디만 하지. 문단속을 안해서 도둑이 들었을때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같으면 도둑질한 사람보다 "ㅋㅋ 문단속 잘 했어야지." 이러지? 그 집 주인은 도둑도 원망스럽겠지만 도둑이 어떻게 들었나 이런원인도 생각해보겠지? 근대 메갈 니네가 지금 하는 짓은 자기책임은 하나도 없고 마을사람들의 손을 자르자고 시위하는거야 도둑질못하게. 이게 정상이냐? 안그래도 요즘 뉴스보면 일베총새끼들때문에 짜증나죽겠는데 별 그지같은 페미메갈년들도 날뛰네 이젠.

6일 전 | 신고

답글

 3  4

mete\*\*\*\*

치안 좋고 나라가 잘사니깐 벌의별 정신병들이 다 터져나오나 보네. 범죄자가 1차 책임자 맞음. 근대 범죄자를 자극해서 범죄가 촉발되는것도 맞는말임. 술먹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놈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자극하면 안되는게 당연한 상식 아니냐? 한국이니깐 저런 소리 나오는거지 이슬람은 옛날부터 강간혼 문화가 기본이고 아직도 성행한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이슬람권 등등 후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 한국남자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수십억 남자를 다 그런거라는 거다

6일 전 | 신고

답글 2

 3  4



**yong\*\*\*\***

대주교 합의금 받아내는년들도 30년 썩게하라

6일 전 | 신고

답글

 2  2

**lawi\*\*\*\***

본능은 어쩔수 없다 다른 선진국처럼 성매매 포르노 합법화해라 그리고 여성부 해체라

6일 전 | 신고

답글



 2  4

**rm57\*\*\*\***

주절떨지말고 집에가서 애나보고 밥이나 하시길

6일 전 | 신고

답글


 4  5

**oved\*\*\*\***

당연히 여자가 술을 마시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무슨 소린인가? 남녀가 서로 술을 먹으면 남자는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여자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남자보고 조심하라고? 조심안하면 어쩔건데? 여자가 관능적인 짧은치마에 술까지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지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에는 정말 남자들은 앞뒤 안따지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충동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되도록 미리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거다

6일 전 | 신고

답글 2

 4  10

**jjw3\*\*\*\***

저런건 여가부나 국회에 가서 따져라. 눈 버리게 하지말고. 커플친지인곳에 가서 뭘 짓거리야 아니면 성범죄자 많은 교도소 가서 퍼포먼스해라. 괜히 분란만 일으키네 예휴

6일 전 | 신고

답글

 0  7

아무리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일상적으로 겪어 온 여성혐오와 성폭력에 대해 증언해도 그저 그들이 '예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댓글창이 새삼 충격이 되었던 것 같다. 여성혐오자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나는 강간을 원한다'를 드러내는 것이 나로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추구했던 효과이기도 하다. 가능하면 최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주류와 정상성의 지위를 차지하던 강간문화에 조명을

비추고 그 포장을 벗기고 싶었다.

이 댓글들은 정말 적나라하게 못나서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다음 중 여학생에게 바른 옷차림을 고르시오'가 교육부의 초등학교 성교육표준안 내용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성폭력을 말하기를 꺼려 왔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말을 해 보게 되는 상황을 비랐다. 지나가다가 캠페인을 본 사람들이 술자리에 가서 성폭력을 주제로 한 마디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정했던 목표였고,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게, 넉 달 동안 매진해온 이 캠페인의 목표가 이 순간에 진짜로 달성되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

수많은 댓글들 중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댓글들 보니 여성부 꼭 있어야겠네' 였다. 외면하고 말하기를 꺼리던 사람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 건 우리의 캠페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동들이었고, 특히 악플 다는 사람들 스스로였다. 성폭력이 남성성을 그 공범으로 하며 자신을 숨기고 책임자를 은폐할 때 취해야 하는 전략은 공범이기를 거부하는 남성들이 뭉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성폭력을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고 지목하며 공범들의 유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 해 동안 SNS와 메갈리안 등의 커뮤니티에서 두 번째 전략이 성과를 냈고 그것이 이 행진으로도 이어져 만족스럽다.

설 연휴로 인해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도 무척 많은 취재가 있었다. 다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말 중에 모든 것이 기사화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신문 기사만이 행진에 성소수자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성소수자 참가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혐오를 통해서 밖에 성소수자의 참여를 언급할 수 없었던 건가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성소수자혐오는 성별역할 강요, 여성의 성폭력피해와 남성의 가해를 '본능'처럼 여기는 일종의 여성혐오와 같은 맥락이라는 걸 행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고, 치마 퍼포먼스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지만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에는 항상 퀴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장 혐오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지 않은가 싶다. 퀴어문화축제 자원활동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행진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획단 중 두 명이 여성해방과 퀴어혁명을 망토에 각각 써서 가져왔는데, 두 구호가 행진에서 함께 필적여서 좋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했던 말들도 ‘들리지 않는 말로 사라졌다. 아마 이 행진에 대한 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참여한 캠페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라지는 말들 위에 가끔은 이런 순간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기사가 뜨고 이슈가 되는 것은 이번 행진을 잘 해서라기보다 이전부터 말해온 사람들의 성과가 운 좋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느낀 기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말들이 그저 사라지고 아무도 듣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종종 생각날 것 같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에 변화가 생기고, 뭔가 기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경험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생각할 것 같다.■

---

## 기획기사 #그전\_강간입니다

여성주의저널 일다에 연재되는 기사입니다.

## 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시작하며<sup>7)</sup>

가은

### 성폭력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사고하게 되길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하기로 한 것은 즉흥적인 일이었다.

작년 10월, 여성혐오에 반기를 든 메갈리아 활동이 한창이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 카메라 촬영물 유포 근거지였던 소라넷이나 그와 유사한 남성들의 성문화에 대한 폭로로 온라인이 들끓던 시기였다. 나 역시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감각이었다. 분노 자체보다도, '함께 분노한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감각이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다. 무력감이 닥쳐오기 전에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제안서를 냈고, 작년 11월부터 함께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상담소에서 공고한 캠페인 자원활동가 모집에 20명이 신청하였을 때부터 그것이 나만의 욕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곧 캠페인을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고, 147명의 후원을 받아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경험과 논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성폭력에 대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한 번 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달라졌다. 간담회를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였다. 아마 앞으로 다섯 회에 걸쳐 연재하게 될 이 기획 기사로도, 이달 말 최종 발표회에서 캠페인

---

7) 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주의저널 일다, 2016.02.12

팀이 발간할 자료집에도 그 이야기들이 다 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갈래의 의문과 감정들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성폭력에 대해 함께 분노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타래가 건네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캠페인이 온라인을 통해 건네받은 여러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했듯이, 이 이야기 역시 건네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나 역시 또다시 연결되는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다시 합류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 여성혐오 사회는 성폭력을 유발하고 방조한다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의 배경이 된 것은 어떤 공통된 분노였다. 여성혐오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는 가시성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여성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다만 이전까지는 그것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로 지칭되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국한된, 연애 시장에서 탈락한 일부 '루저' 남성들의 돌출적 행위라고 해석되었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축소되어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성혐오가 한 번 이름 붙여지며 주목되기 시작하자, 그것이 얼마나 촘촘하게 남성, 아니 사회 전반의 성문화를 에워싸고 있는지 드러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비롯한 여성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강간은 남자친구에 의해, 지인에 의해, 또한 무작위적으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강간 용도의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가 넘쳐나고, 강간 후기가 약물의 상품 평에 오르며 사진과 함께 소라넷에 공유되기도 한다. 아무 인증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남성 유저들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의 성기 사진을 찍어 올리며 강간의 공범을 찾는 ‘초대남 구해요’라는 글을 매일같이 올린다. 여기에 댓글을 다는 남성들 중 누구에게도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 이곳이 가입자 백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 최대의 대중적인 성인 사이트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소라넷의 유입 경로는 매년 바뀌는 주소를 공지하는 공개 트위터 계정인데, 이 계정을 구독하는 팔로워 수만 38만 명에 이른다. 소라넷에 대한 충격이 트위터를 휩쓸자, 한 트위터 계정이 소라넷 트위터의 팔로워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너 소라넷 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이었다. 소라넷이 몰카를 공유하고 강간을 공모하고 인증하는 범죄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소라넷 트위터 팔로워에게 “소라넷 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지나치게 무례하며 부당하고 성적 엄숙주의이며 억압이라는 남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 ‘강간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문화

이 캠페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행동을 수정하도록 요구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항상 여성이었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지 말라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등 모든 ‘조심’의 방침은 여성을 향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또 약물을 이용한 강간은 특히 여성이 조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화살이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항감이 존재한다.

남성 성문화는 이미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남성은 '남자끼리'라는 이유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음담패설을 하거나, 야동을 돌려 보거나, 여자친구와의 성적 경험을 낱낱이 유포하거나, 성매매를 함께 하면서, 서로가 이러한 문화 속에서 들춰되지 않는 공범임을 확인하고 구분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남성 개개인은 성폭력적인 문화의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폭력가해자들 역시 자신을 가해자로 특정되는 개인이 아닌, 수없이 많은 일반 남성들 중의 한 명으로 인식한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얼굴 없는 공모자들과 함께하며, 소라넷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인증되고 만 회 이상 조회되는 일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모는 남성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은 성욕을 참기 어렵고, 성욕을 참지 않는 것이 '남성적인 것'이라는 인식은 수많은 경로로 재현된다. 반면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며, 여성이 성적 존재로 보였을 때 남성은 '본능적으로' 성관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경찰과 재판부조차 공유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신고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쉽게 무죄가 되고, 약한 처벌을 받는 이유이다.

성폭력을 남성의 '본능'처럼 당연시하며 여성들에게 '조심할 책임'을 지우는 교육은 학교와 가정을 막론하고 공기처럼 존재한다. 강간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여성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어서,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을 하거나 방조하지 마라'고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이 강간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거나,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강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은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로 받아들여지는데 말이다.

개인, 단체, 회사, 연인, 영업장, 학교, 친구집단 중 그 누구도 '강간하지 말라'거나 '강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나에게 하는 말'로 듣지 않는다. 그저 형식적인 이야기로 흘러들거나, 심지어 '나는, 또는 우리는 관계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내며 가해자에게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서, 나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라고 한다.

## 피해자-가해자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었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고 꽤 시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그동안 나에게도 주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너무나 분명해서 논의 대상조차 아니지만 실행에는 턱없이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싶었다. '나에게는 특정할만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 '나는 평소에 성폭력에 대해 별로 예민하게 느끼지 못했다', '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충분히 이입할 자신이 없다는 등의,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차마 함부로 내뱉지는 못했던 생각들이 성폭력에 대한 나의 시각이었다.

성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일로 한정짓고 싶어 하고, 그에 공모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나의 위치를 인지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캠페인을 하면서야 조금씩 알아차리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언으려 하며 소유하는 주체'와 '보호 받으며 귀속되어야 할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그 중 한 존재이기를 강요받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피해자이다. 또한 그러한 구분에 의존하고 공고히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두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가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성별 통념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은 사람들 개개인의 통념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자 했다. 그동안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흐려진 책임의 주체를 각각 호명하여 구분하고, 생각의 재고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체는 성별을 불문하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온 모든 사람이다.

기획단 역시 이러한 주체로서 두 달 동안 변화를 거쳐 왔다. 통념을 허물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쉬우나, 통념을 벗어난 사람 또는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무척 낯익은 영역이었다. 그 낯익은 영역이 우리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두 달 간의 회의와 대화, 간담회를 거치며 발견한 곳이었다. 그 곳은 메시지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는 캠페인의 영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의 타래를 통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곳이다.



발렌타인데이에 “동의하고 하는 행진”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성폭력 반대'라는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가능하면 통념을 거스름으로써,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행진 중에 술 취한 듯이 걷고, 길에 쓰러지고, 치마를 들쳐 올리며 성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폭력적으로 구성된 남성성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행진에 포함될 것이다.

행진 이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어질 기획 기사에서 언어를 가지기 전까지 피해를 인지할 수조차 없었던 여성으로서, '남성'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폭력적으로 요구받아온 퀴어로서,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으로서, 또 페미니스트로서 성폭력 문화에서 벗어나고 이를 바꾸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이러한 방법은 또다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던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수한 각도로 논의되고 스며들 수 있을 때에야, 온라인에서 촉발되었던 이 비명에 가까운 운동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분노하던 사람들이 그 때까지 무력감에 지지 않고 이야기의 타래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System] '쭈그리'님이 현피를 뜨고 있습니다8)

수진



### 설 연휴 고향집에서 남동생에게 들은 충고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날 막내동생이 반겼다. 둘째에 비해 막내와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는 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였다. 때문에 둘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내심 반가웠다. 한적한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말했다.

---

8) 두려움에 움츠리기보다 세상을 흔들어봐 - 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그전\_강간입니다>  
②, 여성주의저널 일다, 2016.02.22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 번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누나, 메갈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물었다.

“왜?”

메갈(메갈리아: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불편한 글이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인터넷을 많이 하는 남자애다.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을 보며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됐을 것이고, 누나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을 보며 심란해하다 말을 꺼낸 게 분명했다.

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 지 생각하다가, 일단 내게 얘길 꺼내줘서 고맙다는 말로 시작했다.

## 여성혐오: 거리를 지나다 뺨맞아도 이상할 게 없는

꽃페미. 여성우월주의자. 남성들의 적.

고등학생 때 난 몇몇 남자애들의 주도 아래 몇 개의 단어로 규정됐다. 이유는 단지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또는 ‘여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따위의 말에 대해 내가 ‘왜 남자는 안 하는데?’ 혹은 ‘여자는 왜 하면 안 되는데?’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난 정말 의문이 들어서 물었던 것인데 그들 눈엔 기존 체계를 부수려는 위험한 반란자로 보인 모양이다.

개인에게 수식어를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자애들은 날 피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여자애들마저 ‘여성스럽지 못한’ 날 타박하곤 했다. 친했던 남자애마저 나를 외면하자 괴로워졌다. 여자니까, 남자니까 식의 이중적인 규정에 대한 나의 물음은 정당한 반응이 아니었던 건지, 그렇다면 지금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만약 지금의 나라면 왜곡된 정의를 가진 단어들에 대해 따지고, 내가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거절했겠지만, 그때의 난 그저 견뎌냈다. 내 앞에서 내 외모를 비웃는 입들을, 도움이

필요한 나의 시선을 외면하는 눈동자들을.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들과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하지만 난 여전히 꼬리표가 많았다. 서울에서도 난 여성이었고, 전라도 출신이었으며, 게다가 이대생이었다. 나의 모든 게 약점이었다. 지나가다 일베층에게 뺨을 맞아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수그러들었다. 안으로, 안으로….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여성주의를 배우고 동아리 사람들, 친구들, 선후배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한’ 학교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난 웬만하면 학교 안에서만 머물렀다. 남성들과 만날 일을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한 달을 남성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지낸 적도 있다.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불합리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저 수긍하고 넘겼다. 집에 와서 그렇게 반응해선 안됐는데 하고 후회하는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 메갈리아: 자기검열에서 벗어나 당당해져라

그러던 중 메르스(MERS,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메르스 갤러리(당시 메르스를 최초로 국내에 들여온 감염인이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와 욕설이 난무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메르스 갤러리의 여성유저들이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나섰다)가 탄생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혐을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메르스 갤러리에 몰려들었다. 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메갈리아’라는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났으며, 끝없는 미러링(거울처럼 상대방의 언행을 똑같이 따라 하여 비추는 것)이 진행됐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수많은 남성들을 적으로 두게 됐다.

그들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정치, 유머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민주화운동 비하, 성차별, 지역차별 등 극우 성향을 띤)의 언어를, 폭력적인 언어 권력을 빼어왔고, 여성을 옥죄는 코르셋인 줄도 모르고 사용된 문장들을 끄집어내 그 억압성을 인지시켰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커뮤니티와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는 흥분했다. 메갈을 언급할 때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러링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걸 보니 분명 똑똑한 사람들일

거라고, 멋있다는 말을 연발했다.



난 아직 고등학생들의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종종 스스로의 몸을 재단하고 행동을 검열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 나처럼 스트레스 받아가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터였다. 나는 상대방에게 내 몸을 폄평하지 말라고, 친구 몸을 훑으며 섹시하다고 말하는 식당종업원에게 사과하라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성에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줄 알게 됐다.

소개팅에서 내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만나도 욕먹을까 두려워 방긱방긱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사주던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일베충은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하찮은 짜질이 되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페미니즘이 주제가 되는 빈도수가 높아졌으나, 어느 누구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된다고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활동을 한다는 건, 나에게 덤벼들 상대방의 존재가 무서웠기 때문에 망설여졌다. 전선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며 활동하고 있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부채감이 생겼지만, 난 이 정도에서 만족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

메갈의 존재가 익숙해질 때쯤 나는 유럽여행을 떠났다. 프랑스 리옹에 도착했을 즈음엔 여행의 피로감에 지쳐있을 때였다. 프랑스인 호스트와 함께 집 근처 바에 가서 간단하게 한잔하는데, 이야기 주제는 어느새 페미니즘이 되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프랑스가 아직 멀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한국 현실에 대해 얘기해주자 프랑스는 괜찮은 편이라며 바로 말을 바꾸었다.

‘한남충(된장녀, 김치녀 등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한국남성들을 벌레에 비유한 미러링 용어)같은 사람들이 프랑스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인데다 스스로 숨어들기 때문에 현실에서 마주칠 확률은 적다고 했다. 거기에 덧붙인 말이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였다. 정말 문자 그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다음날 여행은 이 말에 대해 생각하느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다. 프랑스인조차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난 겨우 여기서 만족하려 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며칠 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정동 연쇄살인사건(2005년~2006년 사이에 벌어진 두 건의 납치강간살해 미제 사건)을 다룬 “엽기토끼와 신발장” 편을 방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프로그램 관련한 얘기,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웠다. 그날 밤엔 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밤거리는 물론 낮에도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분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재적 범죄자를 두려워하기보단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었다. 물론 메갈이 등장하기 이전이었다면 가해자들을 무서워하며 구석으로 쫓겨들었겠지만, 이미 내 사고방식은 바뀌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 여행 중에도 온라인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시도해보았지만, 악플에 한 번 시달리고 나니 역시 여긴 내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SNS에 들어가지 못한 지 3일 만에 인신공격이 진행되고 있었다. 상대방이 접속하지 않았는데도 3일이나 거기에 매달리다니,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눈앞에 가시화된 상대가 있어야 핏대 세우며 싸우는 내 성격상, 모니터 뒤의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보단 현실에서 움직이며 발로 뛰는 것이 더 적절했다.



매마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에 참여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지원서를 보낸 후 며칠 뒤에 전화가 왔다. 첫 회의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연락이었다.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 활동은 즐겁다. 가위를 들고 여차하면 “CUT!”이라 외치며 길거리를 걷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과거와는 반대로 내가 가해자들을 위협하러 다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이브 홍대 길거리에서, 발렌타인데이 신촌에서, 평일 저녁의 술집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건물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사실 나의 기대치는 낮았다. 간담회나 길거리 캠페인, 행진을 기획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말자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간담회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의자가 부족했다. 우리의 행진 관련한 기사 댓글창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똥을 썼지만 그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다. 전국구 어그로(공공의 주목을 받기 위한 튀는 행위)를 끝자던 캠페인 기획단의 목표는 4개월간의 여정 끝에 현실이 되어있었다.

## #그건\_강간입니다: 세상을 흔들기 위하여

남동생과의 대화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 속에서 서로 스트레스만 받았을 뿐이다. 동생은 떨떠름하게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고, 난 '네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 페미니스트'라고 대답하며 이야기는 끝났다.

답답하지만 여기서 둘이 더 대화를 나눈다 해도 무언가 바뀔 것 같진 않았다. 대신 난 동생에게 <이갈리아의 딸들>(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 남녀 성역할 체계가 바뀐 이갈리아라는 가상공간이 소설의 무대이다)을 사주었다. 이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다음번의 대화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최근 한 모임에서 '김치녀'가 언급됐을 때 나 외에 어느 누구도 그 단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와 친구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이로 인해 끊길 누군가와의 인연을 무서워한다. (그런 지인은 필요없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과 한 사람과의 인연이 끊겼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SNS에서 메갈을 욕하는 지인과 다투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에게 대해 욕을 할지 두렵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날 차단했을 거라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정리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후련한 한편 불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나 자신과 주변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숨어있던 내가 밖으로 나섰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던 주변 사람들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너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이 늘어날 수록 우리의 판은 점점 커지고 우리의 주장은 당연시될 것이다.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추행하는 자신의 행동이, 사고방식이, 사용하는 용어가 부끄러운 것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짚어주고 꼬집어주며 알려주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라 믿는다. 작년에 한 번 흔들어보았고 어느 정도의 쾌감을 맛보았으니, 두 번 세 번 흔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또 다시 세상을 흔들기 위해 나는 준비할 것이다.■

## 탈출구의 캠페인

이조

어느 날 음악을 하는 친구가 홍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공연 끝나고 홍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7명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무성애자다.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는 성욕조차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또한 나는 젠더퀴어지만 지정성별이 남성이고 사회적으로 남자로 인식이 된다.

그 날도 무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초면의 남자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만 갑자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섹스를 안 좋아한다고요? 제가 돈을 내 줄 테니 저희 같이 안마방 갈래요? 섹스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니 마치 내가 웃기를 기다리는 마냥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웠다. 화나거나 기분이 나쁜 것을 초월하는 당황스러움에 반응을 못했다. 같이 있었던 친구들 사이에 성소수자 여러 명이 섞여 있었고 그들은 정체성의 거부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친구들이 나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느껴졌다. 뇌가 과부하 걸리는 것 같았다. 결국 반응할 생각조차 안 들어서 그냥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니깐 친구들이 그 남자에게 화내면서 가라고 했다. 그는 가면서 한 마디 툭 내뱉고 갔다.

“고자 새끼.”

나는 오랫동안 “무성애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섹스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과 그가 마지막에 뱉은 “고자 새끼”라는 말에 이렇게 나를 향하는 태도가 단순히 무성애자라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수없이 들었던 “고자” 소리,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놀다가 무성애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못 믿겠다며 자신이 시험을 해보겠다고 같이 모텔을 가자고 했던 여자도 있었던 것 등이 생각나면서 단순히 무성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성애자 “남자”여서 그런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줬다.

오랫동안 나는 이러한 고민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친구 중에 “일반적인” 친구가 그다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성소수자 정체화 이후 항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성소수자, 그리고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들을 사이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섹스이야기, 특히 나를 향한 섹스와 관련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사회로 진출을 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단순히 내가 선택한 사람들로만 채울 권한이 점점 없어졌다. 그러면서 남성적인 성에 대한 대화에 점점 노출이 많아졌다. 노출이 많아지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느낀 점이 있다. 우리 남자들은 스스로 과도하게 섹슈얼리티를 강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하이퍼섹슈얼(hypersexual)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외부에게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는 항상 섹스를 좋아한다. 언제나 섹스를 원한다. 섹스가 불쾌해서도, 불편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에게도, 서로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있는 남성적 섹슈얼리티의 규칙들 중 몇 개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 많은 경험들이 점점 더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대학교 때 외국인이었던 애인을 사귀고 있을 때 데이트 하다가 어떤 선배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선배가 애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 여친 몸매 죽인다. 근데, 외국 여자 애들, 진짜 잘 대주냐?’ 이라고 물어보고 내가 기분 안 좋은 표정을 지으니 그 선배가 욕을 했던 경험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났다.

그와 동시에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 보았던 손님들 생각도 났다. 회사 회식으로 온 것처럼 보이던 남자 단체 손님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이 2차로 모두 성매매 업소에 간다고 할 때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 보다가 밖에 나가서는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던 남자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파괴적이고 해로운 남성적 섹슈얼리티의 개념화를 자각한 유일한 남자는 아닐 것이다. 아니, 나는 오히려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늦게 깨달은 편일 것이다. 이미 많은 남자들은 이러한 잣대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것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싫다고 말을 못하는 데에 있다.

홍대에서 그 남자가 나의 반응을 기다린 것도, 선배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자 화내고 욕한 것은 자신이 성폭력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음으로써 나한테 '너도 공범이 돼 줄 것이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자들 사이의 약속으로서의 성폭력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설과 함께 '고자' 이라며 나를 퇴출하려는 말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어찌면 스스로를 방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는 셈이다. 그렇기에 다른 남자들이 하는, 지나가는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음담패설이나 길거리괴롭힘을 지켜보기만 하며, 여자에게 술을 매겨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선배에게 "그건 강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그려지는 섹스가 아무리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워도 불편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으라는 요구는 "너도 공범이지?"를 넘어 이제는 공범이어야만 남자라는, 남자들 사이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암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자라는 위치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권력, 특권을 알고 있고 그 위치에서 박탈된 사람들이 어떻게 배제가 되는지 보고 자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계속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폭력적인 틀에 가둬 놓는다.

우리는 수감자이자 그 수감자를 감옥에 가둬 놓고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감옥 같은 방에 탈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굳게 잠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우리는 그 열린 문 밖으로 걸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기회는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에게 있었다.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 불쾌함, 상처, 그리고 아픔을 표현을 해야 한다. 그것이 탈출의 길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들끼리 생긴 침묵의 약속을 깨야만 한다. 그것은 남을 위한 어떠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내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갈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탈출구가 없는 방에 갇혀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폭력적인 섹슈얼리티의 행동들을 지켜 볼 수밖에 없고 참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오히려 그 반대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에서 나오기 위해서 직면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방문의 자물쇠의 열쇠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페미니스트 작가 비르지니 데팡트는 인터뷰 도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강간은 항상 여성의 주제로 다루어진다. 내가 45세인데 30년 넘게 강간에 대하여 여성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쳤다. 나는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제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떻게 남을 강간을 할 수 있지? 강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자들의 힘만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남자들에게는 강간은 언어가 없는 칠혹 같은 어둠, 마치 밤과도 같다. 이곳에 빛을 비추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폭력적으로 형성된 남성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회피한다. 남자가 피해자일 때, 남자가 가해자일 때,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로 만들어 버린다.

남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남자를 일반화 시키지 마라, 저건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미친놈”의 이야기다, 아니면 피해자에게 옷을 그렇게 입어서, 네가 술 취해서, 네가 먼저 유혹해서 등으로 책임을 전가를 한다. 이것이 남성적 섹슈얼리티에 내제된 폭력성을 피하고 은폐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하지만 우리는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꺼려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남성일 때 그 사실을 기존에 갖고 있던 성소수자혐오의 불을 키우기 위한 장작으로 이용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남성간의 성폭력에 관련된 연구를 읽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진행된 감옥에서 일어나는 동성간의 간간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의 조사를 따르면 가해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이성애자로 정체화한다. 즉, 이성애자여도 동성 사이에서 권력적인 위치를 점령을 했음을 강간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많은 안타-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들이 강간을 여성 이슈로 만들면서 남성 성폭력피해자들을 무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일 때조차 남성 생존자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너는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섹스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강간이야? 감사해야 할 일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넌 어떻게 여자한테 강간 당하냐? 남자 맞냐?”를 넘어 “남자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냐?”라는 이야기까지 자주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강간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회피한다.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는 남성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폭력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편함, 불쾌함, 아픔에 대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폭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행위에 대한 고려와 논의는 우리가 이 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행위이다.



가끔 캠페인 도중에 왜 무성애자가 섹스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냐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남자들 사이에서 성폭력, 강간을 넘어서 남성적인 섹슈얼리티의 불편하고, 불쾌하고, 아픈 곳까지 모두 들쭈시는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걸어 나가는 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새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두려워하고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1월 15일에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에서 “남성성 김장하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한 행사이죠. 그리고 이러한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후속모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저녁,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이러한 방을 탈출할 길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답답한 방의 문을 활짝 열고, 같이 걸어 나갑시다.■



## 죽도록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강간 정의에 관해

여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의 에피소드에는 여자후배에게 술을 먹여 필름이 끊기면 모텔로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선배가 등장한다. 피해자는 여럿이지만 그는 전역 후에도 여전히 순탄한 학교생활을 즐긴다. 여주인공 홍설 또한 술자리에서 그가 따라주는 술잔을 비워내다 잔뜩 취기에 오른다. 하지만 그 선배의 부축을 받아 나갈 찰나, 이야기는 멋진 남주인공 유정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다소 예상가능한 전개로 흐른다. 방해(?)에 화가 난 그가 "왜 작업 다 걸어 놓은 애를 보내냐"며 언성을 높이고, 유정은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응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채.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엄연한 강간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그 선배는 이를 '작업' 짬으로 여기며 도리어 남자 주인공의 방해에 격분한다. 유정 또한 그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기보다 방탕한 행실이 부를 '앞날'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만 할 뿐이다. 게다가 홍설은 어떠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유정이 잡아 준 택시에 오른다.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 기획단 활동 중 느낀 점 한 가지는, 술을 먹거나 약물 섭취 후 이뤄지는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련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술 또는 약물을 이용한 채 이뤄진 섹스는 명백한 성폭력이다. 그럼에도 술은 일상에서 연애나 잠자리를 위한 일종의 작업 수단 혹은 둘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제 정도로만 치부된다. 물론 그것은 둘 사이를 가깝게 하고, 이를 동반한 섹스의 즐거움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술을 마시거나 섹스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누가, 어떻게, 왜 했는가 하는 일련의 '맥락'이다. 하지만 상대가 모르는 사이 독한 술을 주문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후 발생하는 성관계 등이 내포하는 피해 경험은 소거된 채 술은 유용한 작업 수단이라는 가해자적 시선만이 우위를 획득한다. 작업주요 여성을 유혹해 모텔에 간 썰(설)이나, 판매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최음제 구매 후기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실상은 강간이 작업이라는 어휘로 대치되는 그릇된 낯면을 보여준다.

현실과 드라마의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정에서 서게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이 더욱 참혹해질 수 있는 때는 그 이후다. 법정에서 피고 측과 원고 측은 하나의 진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진실을 다룬다. 여기에서 법은 진실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법은 진실을 찾아내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여야 하지, 스스로 진실이 되어 군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치우침 없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이는 법 역시 이를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역사적 산물로서 존재한다. 한 사건을 두고 내려지는 판결은 사회의 담론과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및 이를 둘러싼 여러 해석은 사회적 산물로서의 법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보는 최협의설 입장을 취한다. 때문에 사건의 초점은 피해자의 반항 가능성 여부로 쏠린다. 즉 피해자(고소인)는 자신의 저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불가능했는지 혹은 얼마나 열심히 저항했는지를 입증해서 이를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피해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술·약물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한 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요지이다. 하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건에 대한 해석 또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오류를 갖기 쉽다. 강간피해자가 저항의 수준을 입증하게 되듯 준강간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증거로 보여야 하기에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비슷한 사건도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다. 이는 법이 명확한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두 사건은 지적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해석의 자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항거불능'에 대한 판결 비교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p>	<p><b>김 양 사건(2011년)</b></p> <p>김모 양(15) 3급 지적장애</p>
<p>항거불능에 대한 재판부 판단</p>	<p><b>도가니 사건(2008년)</b></p> <p>박모 양(당시 13세) 청각장애 2급 정신능력 동일 연령의 '평균 하(下)' 수준</p>
<p>“상황판단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며 거부감을 표시하지 못하는 편...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이 없거나 희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된다.”</p>	<p>“신체 또는 정신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로 인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p>

두 사건에서 드러나는 재판부 판단의 자의성

출처: 동아일보 "지적장애인이 성관계 거부 안했어도 항거불능 상태" 인정 (2011.11.06)

각종 정황과 증거가 오기는 법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은 결국 '그 성관계'가 '합의'에 근거 했는가를 두고 공방한다. 그런데 위의 두 조항은 피해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했는지, 혹은 얼마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증명함으로써 '합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만든다. 강간이 상호 간 동의를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고, 성관계가 일어난 방식(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관계 또는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관계)을 통해 결정되는 실정법 하에서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 직업, 성적 취향, 술에 취했을 때의 걸음걸이 등 사건 자체와 동떨어진 부수적 요소들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근거로 작용한다. '충분히' 저항을 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곧 성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판단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동의'가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까지는 피해자가 모든 육체적 힘을 다해 가해자와 싸우는 '극도의 저항(utmost resistance)'을 했을 때만 강간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강간죄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1974년 미시간 주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주 형법이 저항 요건을 폐지했다<sup>9)</sup> 또 1992년 뉴저지주 대법원판결에서는 '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자유로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삽입은 성폭행을 구성한다.' 라며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곧 성폭력이라는 입장을 관철시켰다<sup>10)</sup>.

9) 조선일보, "죽을 힘 다해 반항하라 아니면 Yes?", 2011.01.08.

10) 동아일보, "성폭력 편견과 진실", 2014.11.11.

캐나다 역시 형법 265조를 통해 상대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행위 및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해 일어난 성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된다고 명시한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와 '비동의'의 의미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다음의 266조에서 동의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특정한다. 가령 협박 혹은 두려움을 느꼈거나 권력 행사로 쉽게 저항하지 못했을 때는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동의 여부가 강간 성립의 요건이 되면 술이나 약물 섭취 후 발생한 성관계에서 강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정도'가 될 수 없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피해자의 동의가 가능한 실제적 상황에서 상호 간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근거로 재구성 및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북미권 국가 간 형법의 차이는 곧 '무엇이 강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으로 귀결된다. 후자에서 강간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라면, 한국은 폭행과 협박, 항거불능과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지는 성관계를 강간이라 분류한다.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현실 속 무수한 고통들은 법 테두리 밖 개인의 몫으로만 남게 된다. 그러나 강간에 속하는 행위들을 법조문에 계속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진 않는다. 우리들 삶의 곁은 법조항 몇 줄보다 훨씬 세밀하고 불완전한 까닭이다. 법이 인정하는 '몇몇 행위'만이 강간에 속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저마다 다른 개인의 고통을 보듬어주지 못함을 보여준다. 갖가지 고통을 법의 안전망으로 포섭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요건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강간이 아닌 것, 즉 명백한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강간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내가 동의한 섹스'라 답한다면 이를 제외한 성행위가 곧 강간이다. 이제 바뀌어야 하는 건 '#그건 강간입니다' 라는 외침의 토대를 이루는 '강간의 정의' 그 자체다.■

---

## 부록

## 알콜과 연관된 성폭력 : 대학에서의 빈번한 문제(1)

번역: 닥터W

본 연구는 대학 학생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문건을 리뷰하였다. 우선 대학생 간 성폭력 발생 빈도와 알콜 관련 성폭력의 발생 빈도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알콜이 성폭력에 어떻게 공헌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설명되어 있다.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이후에 본 연구는 예방과 정책 관련 이슈를 다루며 마친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된 연구는 1987년의 'Koss et al'에 의한 연구로, 미국의 고학력자를 대표하기 위해서 32개 대학에서 61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54%의 여성이 어느 정도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5%는 실제 '법적 강간'을 경험하였고, 추가 12%가 강간 시도를 겪었다. 이 중 단 5%의 여성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42% 정도가 성폭력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미국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한 여성에 대한 연간 성폭력 발생빈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생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입학 연도에 31%의 여성이 어느 정도의 성폭력을 경험하며, 6.4%가 실제 강간을 경험한다. 이 중 자신의 경험을 대학 관계자에게 이야기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관계기관에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신고한 여성은 자신들이 "2차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다.

'Koss et al' 연구에 의하면 25%의 대학생 남성은 14세 경에 어느 정도의 성폭력을 이미 저지른 적 있다고 답했다. 7.7%가 이미 14세의 나이에 '법적 강간'을 저지른 적 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연구자에 의하면 대학생 남성의 설문 결과는 실제보다 낮은 값을 보일 수 있다. 이들은

### 11) Alcohol-Related Sexual Assault: A Common Problem among College Students. ANTONIA ABBEY, PH.D.

*Department of Community Medicine, Wayne State University, 4201 St. Antoine, Detroit, Michigan 48201*

여성의 비동의(nonconsent)를 막연하고, 애매하거나 위선적인 대답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강압적인 행위가 강간이 아닌 평범한 구애 행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이다.

### 알콜 관련 성폭력 빈도

50% 정도의 대학 내 성폭력은 알콜 사용과 연관되어 있다.

74% 가해자와 55% 피해자가 알콜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알콜 섭취와 성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알콜 섭취와 성폭력이 흔하게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콜이 성폭력을 유발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의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다.

남성은 자신의 행위에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성폭력 이전에 알콜을 섭취한다.

가해자들은 주로 성폭력을 행하기 전에 알콜을 핑계로서 삼는 반면, 피해자들은 주로 자신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진다.

미국의 성 역할은 남성에게 강압적이고, 지배적일 것을 장려하며, “no”를 “더 설득해봐.”라는 의미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남성이 항상 섹스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여성은 그들이 성적인 행위에 적극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며, 그렇지 않을 경우 쉽거나, ‘싸다고 레이블 될 것이라고 배운다.

여성들은 성적인 행위에 한계선을 긋도록 요구받고, 남성이 그것을 어길 경우에 그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기대된다. 남성은 주로 여성의 거절을 포기하라는 뜻보다는 더 노력하거나, 조금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강요된 섹스가 acceptable한 상황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잠힐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1/3정도의 남성이 어느 정도 강간을 할 수도 있는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것이 데이트 강간에 범죄라는 인식을 좀처럼 갖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들은 특히 술을 마실 때 남성에게 작용할 수 있

다.

남성은 술을 마시면 더 powerful, sexual, aggressive하게 느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남성은 술을 마실 때, 자신의 여성 상대의 행동을 성적 관심의 사인이라고 해석할 확률이 더 높고, 섹스를 얻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쉬이 여긴다.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알코올의 섭취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남성의 이러한 믿음이 알코올이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성적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만약에 남성이 스스로에게 “너무 취해서 그랬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규정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많은 대학생 남성은 바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이 성적으로 더 활발하고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여긴다.

### 예방과 정책 제안

대부분의 강간 예방 프로그램은 알코올을 위험요소로 다루기는 하나, 강조하지 않는다. 책임감 있는 음주에 대한 프로그램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성폭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알코올 오용 예방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알코올 관련 성폭력의 빈도와 정보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알코올 섭취가 법적으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으며,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간이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 요약 및 결론

요약하자면 미국 대학생 여성 중 반 이상이 어느 정도의 성폭력을 경험하였고, 남성 중의 25% 이상이 14세의 나이에 강간을 이미 저지른다.

남성들이 실제 저지른 강간을 강간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정당화한 경우나, 여성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강간들의 케이스를 고려한다면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학 내 성폭력 중 반 이상의 케이스가 알코올 사용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남성들은 강간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알코올을 이용한다. 술에 취한



남자는 “정상적으로”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거라는 신화가 그들에게 좋은 핑계 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의 섭취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도 술에 취한 남성들의 강간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지 않았던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남성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연구는 반대로 술에 취한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더 성적으로 활발하고 문란할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성폭력에 더 적합” 할 것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을 것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만든다.

이처럼, 성폭력의 역학에서 음주의 역할은 중대하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성폭력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 내에서 술자리로 인한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자리 예절 교육’을 산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술 취한 여자는 문란하고 조신하지 못하며, 술 취한 남성을 ‘취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신화를 깰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성교육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음주가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으며, 만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강간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 일본 강간죄·준강간죄 관련 법률<sup>12)</sup>

번역: 미전타

###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 또는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 준강간죄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은 경우도 여성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시켜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형법 제 117조 2항),

수면, 음주 외에 현저한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간음을 하는 것도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의사가 성적지식이 없는 소녀에 대해, 약을 넣는 행위 등 오신(誤信)시켜 간음에 이르는 것도 준강간죄가 된다 (대심원 1926년 6월 25일 판결 선고집 5권 285페이지).

또한, 범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기절(심신상실) 시켜, 간음에 이른 경우는,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가 된다. 다만,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모두 동일한 법정형에 있기 때문에, 구분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 □ 재판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 피의자·피고인이 된 남자가 합의(소위 말해 상대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및 검찰 측이 폭행·협박 사실이나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사실의 입증을 강요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았다.■

---

12) 일본 위키피디아  
(<https://ja.m.wikipedia.org/wiki/%E5%BC%B7%E5%A7%A6%E7%BD%AA>)

취합정리: 수진

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2016.02.12.	일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의하고 하는 행진' 행사 개최	2016.02.12.	시사타임즈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폭력"...성폭력상담소, 14일 거리 행진	2016.02.12.	뉴스한국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폭력입니다"	2016.02.13.	여성신문
'술에 의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입니다'	2016.02.14.	뉴스1
'동의 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 입니다'	2016.02.14.	뉴스1
'술에 취한 여성 성폭력은 범죄'	2016.02.14.	뉴스1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폭력입니다'	2016.02.14.	뉴스1
치마 입고 거리에 누운 까닭?... "짧은치마가 강간이유 안돼"	2016.02.14.	뉴스1
'술에 취한 여성 성폭력 반대'	2016.02.14.	뉴스1
'성폭행의 원인은 여성의 옷차림이 아닙니다'	2016.02.14.	뉴스1
'데이트 성폭행 추방 합시다'	2016.02.14.	뉴스1
'취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범죄다'	2016.02.14.	뉴스1
'신촌 한복판 거리에 누운 학생들'	2016.02.14.	뉴스1
'몸에 대한 권리는 취하지 않는다'	2016.02.14.	뉴스1
'동의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신촌에서 캠페인 열려	2016.02.14.	중앙일보
치마 입을 남녀가 신촌 한복판에 드러누운 이유(화보)	2016.02.14.	허핑턴포스트
성폭력 반대하는 퍼포먼스	2016.02.14.	뉴시스
동의없는 성폭력 반대 퍼포먼스	2016.02.14.	뉴시스
술을 이용한 성폭력 반대 퍼포먼스	2016.02.14.	뉴시스
발언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원들	2016.02.14.	뉴시스
'모든 성폭력 반대'	2016.02.14.	뉴시스
'취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범죄다'	2016.02.14.	뉴시스
'빨히 보는 거, 괴롭힘 입니다'	2016.02.14.	뉴시스
발언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원들	2016.02.14.	뉴시스
"술 마셨다고 성폭력? 안 돼!" 만취 퍼포먼스 사진 7선	2016.02.14.	위키트리
[포토뉴스] "술·약물 이용한 성폭력 안돼요"	2016.02.14.	경향신문
[경향포토]술에 취한 여성 성폭력 반대	2016.02.14.	경향신문
[경향포토]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반대 캠페인	2016.02.14.	경향신문
[경향포토]성폭력 반대 캠페인	2016.02.14.	경향신문
[경향포토]만취여성 성폭행 안되요	2016.02.14.	경향신문
[경향이 찍은 오늘]2월14일 #그건_강간입니다	2016.02.14.	경향신문
성폭력 방지 캠페인	2016.02.14.	파이낸셜뉴스
'동의하고 하는 행진'	2016.02.14.	연합뉴스
'내 옷차림은 내가 정한다'	2016.02.14.	연합뉴스
'몸에 대한 권리는 취하지 않는다'	2016.02.14.	연합뉴스
'취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범죄다'	2016.02.14.	연합뉴스
[포토] 신촌 차 없는 거리 '성폭력 방지 행진'	2016.02.14.	국민일보

"동의없는 성관계, 폭력적 성관계 아닌 '강간'"	2016.02.14.	포커스뉴스
"취한 상태에서 '동의'? 그건 강간이다"	2016.02.15.	포커스뉴스
[15일 모닝브리핑] 박 대통령, 16일 '북한 도발 현안' 국회연설 외	2016.02.15.	국민일보
"그건 강간입니다" 신촌 길바닥에 드러누운 청년들	2016.02.15.	서울신문
"취중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2016.02.15.	여성신문
"골뱅이? 그건 강간입니다"	2016.02.22.	일다



1. 그건 강간입니다

취한 상대와의  
동의 없는 성관계

합의 없이 흥분제 등을 사용하여  
유도한 성관계

어디서 만났든, 어떤 관계이든

**그건 강간입니다**

'동의' 칼 상호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 이 팸플릿을 원하는 장소에 포스터처럼 게시해 주세요!

**Rape is Rape**  
**강간 아닌 강간은 없다**

성폭력이 발생할 때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피해자 중 55%, 가해자 중 74%!  
그러나 음주여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비난이 되고 가해자에게는 핑계가 됩니다.

술을 마신 것이 성폭력 가해의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듯,  
성폭력 피해에도 아무런 비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강간을 피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는 '강간하지 말라'고 외치는 더 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동의' 없는 모든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자고 있거나, 강요 받았거나,  
다른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 참여에 주세요 ※

- 이 팸플릿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그건\_강간입니다** 해시태그로 인증해 주세요!
- 캠페인은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1005-000-955909 (사)한국성폭력상담소로 후원해 주세요.
- 이 팸플릿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술과 약물을 활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기획단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를 참고하여 이후 일정에 동참해 주세요!
- 참여문의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시길 분은 [antialykrape@gmail.com](mailto:antialykrape@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막을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자를 위한 가이드

“술 맛 안 나면서 혹 가게 타서 주세요”

술에 취한 데이트상대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려는 사람의  
주문을 들으셨나요?

데이트 상대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며,  
여기에 술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방조입니다.

주류 판매자는  
성폭력을 위한 술 판매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판매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범죄동참을 요구하는 **폭력**입니다.

**성폭력 목적이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혹 가는 걸로 타 주세요”, “술 맛 안 나고 세게 주세요” 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문자가 지나치게 취해 있거나,  
성폭력이 목적임을 직접  
암시하는가?**

**YES**

**위험이 예상되는  
상태에서의 주문,  
성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누가 마실 술인지  
물고, 드실 분에게  
성분과 도수를  
설명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고지하세요.**

- 이 팸플렛은 한국성폭력상담소 (sisters.or.kr)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이 제작하였습니다.
- 바, 화장실, 입구 등에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그건\_강간입니다 해시태그로 올려주시거나 카카오톡 (ID : stoprape) 로 보내주시면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SNS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실 분은 antialykrape@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취한 사람과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형법 제 299조에 의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판매하는 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한 도수의 술 판매시  
위험을 고지합니다**



4. 다용도 스티커 6종



## THANKS TO

**소셜펀치 후원자** 솔비톨, 못지, 당근, 이현정, 도랑, 솔비톨, 시카, 서지희, 임유진, 장로, Woman, 모찌어니, 웃는개, 곽나현, 사눌, 박은정, 한유진, 나눔, 남운아, 김영신, 이웅, 김팀, 윤은정, 이현정, 최담담, 랄라, 메리크리, 파니, 도균, T성노동자이류시연, 강수정, 이하나, 김민아, ㄱㅈ, 뽕, 슬아, 달, 이셋별, 리우, 응원합니다, 권김현영, 시리, 이야로, iona, 이예지, 조안나, 지야우, 히누, rwa, 서화, 웃는개, 별, 권은지, SY, GIAN, 니야, 최수정, Glee, 박지수, chloe, 곱창, 막창, 박효진, 김지혜, 마르샤, 노은정, 강정화, 크리넥스, 조성은, 룰루, 서혜원, 사선생, 암치, 양민희, 윤고운하나, wifuroti, 박다나, 박은애, 이해랑, 호도딱콩, 행메갈, 페루새, h, 정수희, 5, 모현주, 김지운, 명랑이, 최다인, 이승연, 이전, 이은희, 달, 최미희, ㄱㅈㅇ, 신, 박지아, ㅇㅈㅇ, 키나, 강승원, 김민주, 포로리, 이혜림, 유랑, 루루, 루비언니, 김나라, 사랑, via, 대추대심, ㅇㅇ, 움바, ㅇㅇ, Farfalla, 모모님, soo, 변, 김지은, 황정담, 이동은, CARLA, 둥글이, ㅁㅁㅁ, 네크멜리아, 냥냥이, 문선화, 금세, Hye, 고다연, 바니미, 강수연, 후니, 김단비, 별명미정, 엘리, 라흐쉬나, 장유선, 로아나, 메떼지, Margarita, 메오후, 알마아노미, 후원, 갓치, 잇힝, ASI, 김태훈, 서은영

<b>발제</b>	라라, 백목련
<b>공연</b>	신승은, 코스모스슈퍼스타, 키라라
<b>사진촬영</b>	키
<b>행사지문</b>	현주, 홍기훈
<b>웹플라이어</b>	물감 (애주가야밤)
<b>물품지원</b>	노동당 서울시당, 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
<b>자원활동</b>	강수정, 박소원, 서아연, 스투페파이, 이상준, 이슬기, 최인경, 홍원선, Wonder

캠페인 활동 참가자 모두

# #그건\_강간입니다

**발행일** 2016년 2월 25일  
**발행인** 이미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편집** 이경은, 방이슬  
**기획단** 가은, 겨울, 그녹, 닥터W, 단청, 동동, 마젠타, 만다린, 수진, 아즈, 예지, 이조, 하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2층  
**사무전화** 02) 338-2890~2  
**상담전화** 02) 338-5801  
**이메일** antialyakrape@gmail.com  
**홈페이지** www.sisters.or.kr  
**SNS** facebook.com/214march  
@stoprape

본 캠페인은 147명의 소중한 소셜펀치 모금후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2016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